배 지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 프로젝트 활동을 중심으로 -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 윤 형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 프로젝트 활동을 중심으로 -

배 지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최 윤 형

인 준 서

최윤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심사위원 _____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늘푸른 어린이집 만 3, 4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푸른반의 수업 활동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수업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혼합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직접 전개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역할 및 유아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2.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전개한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와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노원구에 위치한 늘푸른 어린이집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에서 이루어 졌다. 연구 참여자는 만 3세 유아 13명과 만 4세 유아 8명으로, 총 22명의 유아들과 담임교사인 연구자, 그리고 푸른반을 함께 운영하는 동료교사이다.

연구는 2009년 6월 15일 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인 담임교사는 혼합연령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두 차례의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반성적 실천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푸른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과정은 참여관찰을 통해 관찰내용을 전사하고, 사진・동영상

촬영, 면담자료, 교사저널 등의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나누고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써 프로젝트 활동은 기존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해줌으로써 수업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주제중심활동을 연령에 맞게 수준별로 진행하였을 때는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혼합연령학급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연령별로 따로 활동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1차, 2차 실행을 통한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부터는 유아와 교사의 능동적인 활동참여 뿐만 아니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혼합연령 유아들의 모습, 그리고 세심한 관찰력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탐구력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활동은 Katz와 Chard(1989)가 제안 한 것처럼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적합하였고 혼합연령 유아들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는데 적절하였으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여러 종류의 과제를 포함 할 수 있었다

둘째,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와 유아들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고, 교사는 많은 사전 준비를 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눈높이를 맞추어 주며 협력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유아들의 적극적인 탐구력은 교사로 하여금 항상 연구하게 만드는 등 프로젝트 활동은 교사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5
3. 연구자 배경 ····· 5

Ⅱ.이론적 배경 ····· 8

1.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구성 ····· 8
2. 혼합연령 학급의 개념 및 의미 ····· 9
3. 혼합연령 학급의 교육적 효과 ····· 11
4. 교사의 역할 및 교수전략 ····· 13
5. 프로젝트 접근법 ····· 16

Ⅲ.연구방법 ····· 22

1. 실행연구방법 ····· 22
2. 연구 참여자 ····· 23
3. 연구절차 ····· 27
4. 자료수집 및 방법 ····· 32
5. 자료분석 ····· 34

Ⅳ. 결과 및 해석 ····· 35

1.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 35

2.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전개한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 66

Ⅴ. 논의 및 결론 ····· 83

1. 논의 ····· 83

2. 결론 및 제언 ····· 91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프로젝트 접근법의 단계와 구조 ····· 20
<표 2> 푸른반의 하루 일과 ····· 26
<표 3 > 푸른반에서의 연구 일정 ····· 27

그 림 목 차

[그림 1] '장수풍뎅이' 교사-유아 주제망 ····· 41
[그림 2] '공룡' 교사 예상 주제망 ····· 56
[그림 3] '공룡' 교사-유아 주제망 ····· 56

사 진 목 차

[사진 1] 동영상 자료 ····· 54
[사진 2] 여러 종류의 공룡책 ····· 54
[사진 3] 다양한 공룡모형 ····· 54
[사진 4] 공룡 메모리게임 ····· 58
[사진 5] 공룡길 만들기 ····· 58
[사진 6] 실시간 컴퓨터 검색 “무엇이든 알아보아요” ····· 58
[사진 7] 육식, 초식공룡 분류해보기 ····· 59
[사진 8] 같은 종류의 공룡끼리 모여라 ····· 59
[사진 9] 공룡 이름 따라 쓰기 ····· 59
[사진 10] 활동 전시회 ····· 59
[사진 11] 역할-블록영역 ····· 69
[사진 12] 과학영역 ····· 69
[사진 13] 과학영역-장수풍뎅이의 생애를 알아보아요. ····· 69
[사진 14] 협동작품-재활용품으로 스테고사우르스 만들기 ····· 73
[사진 15] 공룡마을 꾸미기- 미술, 과학영역 ····· 76
[사진 16] 공룡들이 사는 곳 2- 블록, 역할 영역 ····· 77
[사진 17] 공룡화석 만들기 ····· 80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가치관의 변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집단에서는 가족의 형태나 연령 차이가 다양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와 사회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으나 현대사회에서의 핵가족 집단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대인관계 기회가 감소함으로써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회화의 많은 부분을 유아교육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정혜진, 2006).

일반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급구성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동일연령 집단이 대부분이다. 이는 유아들 간 개인차의 폭이 넓지 않고 교사의 수업준비나 학급운영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Katz와 그의 동료들(1990)은 유아들이 자연적인 혼합연령 또래집단 형성을 선호하지만 연령에 의해 학급을 구성하는 이유는 같은 연령 아동들이 동시에 많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유준호, 홍용희, 2006 재인용).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가족구조의 변화로 오랜 시간을 가정 밖에서 보내는 유아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혼합연령 학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우리나라 혼합연령 학급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학년도 유치원 현황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유치원 총 학급 수 22,409중에서 혼합연령 학급이 5,530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2005), 그 이유는 혼합연령 학급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종일제 학급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혼합

연령 학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혼합연령 학급의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혼합연령학급이 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Katz와 그의 동료들(1990)은 단일연령학급에 비해 가족 및 이웃집단과 더 유사한 특징이 있으며, 또래집단과 달리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더 편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tephens(1991)은 혼합연령학급이 연령이 높은 영유아와 연령이 낮은 영유아 모두의 학습을 강화하고 나이가 많은 영유아들에게 포용력과 책임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연령이 낮은 영유아들은 연령이 높은 영유아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김명숙, 2007 재인용).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의미를 찾는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다. 이명환(2005)의 연구를 보면 독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로 유아 시기 가족 간의 사랑과 형제, 자매애의 결속, 더 나아가 가정 내에서 유아 상호간에 상부상조하는 중요한 사회성 경험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혼합연령 학급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혼합연령학급에서 삶과 학습의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스웨덴 유아학교의 경우는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형제가 없는 유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는 점과 자주 집단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전제에서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양옥승 편, 1993).

영국 유아학교에서도 유아의 개별학습, 창의적 학습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의 집단을 가족적인 집단으로 형성하기 위해 혼합연령 학급으로 통합된 하루의 일과를 운영한다고 한다(이기숙, 1992).

우리나라에서도 혼합연령 학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는 영유아보육기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제는 변화된 학급구성원 즉, 혼합연령 학급의 지도에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김명숙, 2007).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연구나 현장에서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식조사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영유아보육기관에서 혼합연령 학급을 위한 교육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사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주, 1998; 전화숙, 2000; 이정숙, 2006; 유준호, 2006).

임재택(1986)은 일찍이 혼합연령 집단은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학습활동의 계획과 지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경력이 부족하거나 학습활동의 자료가 다양하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즉, 교사들은 연령 혹은 능력 간 차별을 보이는 영유아들을 위한 협력 혹은 개별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계획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신은수(1996)는 혼합연령 학급에서 영유아의 사회인지 능력이 단일연령 학급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혼합연령 학급에 맞는 교수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는 드물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단일연령학급과 혼합연령 학급의 비교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일연령 학급과 혼합연령 학급간의 놀이행동비교(김진선, 1998; 부은영, 2000; 이윤경, 1997; 하승민, 1995)를 비롯하여 사회성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강자경, 2000; 문창숙, 2002; 박순희, 2003; 백은경, 2009; 우수희, 1999; 이윤희, 2005; 이정분, 2001),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김현미, 2002; 홍금주, 2003; 한금희, 1997)등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합연령 집단에서 다양한 놀이 형태가 관찰되고 사회성 ,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 들어서면서는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교사와 부모에 대한 인식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다해, 2008; 박영민, 2007; 박정란, 2006; 이정숙, 2006).

박정란(2006)의 연구에서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보면 높은 연령의 유아, 낮은 연령의 유아들 모두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혼합연령 학급이 발달수준에 따른 수업준비의 어려움과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운영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교수학습방법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혼합연령학급 운영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교수학습방법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위의 단일연령 학급과 혼합연령 학급의 비교연구에서도 혼합연령 학급이 다양한 영역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지만,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남아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만 3, 4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푸른반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수업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혼합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직접 전개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역할 및 유아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갖는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며 유아교육현장의 많은 혼합연령학급에서도 효과적이 수업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나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활동전개를 위한 교수전략 탐색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2.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전개한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와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자 배경

연구자는 2003년도 4년의 대학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보육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 유아 20명을 만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학급구성은 단일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공간상의 문제로 만 3, 4세만 혼합연령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대학시절동안 실제 활동들을 위한 모의 수업 시 연령별에 맞게 준비하고 실행해보았으며 무엇이든지 연령별 영유아 발달에 맞게 공부했던 연구자는 혼합연령 학급이 어렵게만 느껴졌다. 개인의 발달차이도 많이 느껴지고 반응도 다양한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준비는 초임인 연구자에게 늘 스트레스이고 어려운 과제였다.

연구자의 수업 방법 선택은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이었다. 혼합연령 학급이지만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배운 대로 만 3세에게 적절한 활동과 만 4세에게 적절한 활동을 구분지어 수업활동을 준비하고 각각 진행하였다. 경력이 있는 선임교사들은 난이도만 조금 조절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라고 조언해 주었지만 초임인 연구자에게는 그것 역시 어려움으로 느껴졌다.

결국 수준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한해를 힘들게 마무리하였다. 아

직도 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수업준비만 했던 초임 때의 시절이 기억난다. 그 때는 유아들과의 수업이 재밌기보다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었다.

2003년도 첫 교사로서의 나를 돌아보면 만족스럽지 못 하였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며 불평만 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혼합연령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6년 후인 2009년 연구자는 또 다시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을 맡게 되었다. 초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그때의 어려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제는 초임이 아닌 경력자로써, 유아 개인차를 수용하는 수준별 활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학급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들이 하나가되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들의 입장에서 어리이집 생활이 어떻게 느껴지고 나는 그 연령때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게 되었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 맞벌이로 바쁘신 부모님 때문에 주로 할머니, 언니, 동생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두 언니와 동생 하나로 네 자매가 한방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큰 안방을 우리가 사용하였었다. 우리 자매들에겐 이 방이 작은 보물 창고이자 놀이터와 같았다. 그 안에서 함께 놀이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서로 챙겨주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때론 갈등상황도 생겨 싸우기도 했지만 자매가 많다 보니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언니들로부터 중재가 되기도 하고 문제해결방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한글도 따로 배운 기억이 없다. 언니들이 읽어주는 동화책과 친구들에게 쓰는 편지, 언니들이 하는 숙제들을 보면서 나도 언니들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하다 보니 어느덧 자연스럽게 한글도 깨우쳤었다. 무엇보다 자매들과 항상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또래 친구들보다 말을 잘하는 편이어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동네나 학교에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친구들을 잘 사

귀었다. 어린 시절에는 언니들과 동생이 나에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교육적 효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공부하면서부터 어린 시절 우리 네 자매가 나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발달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합연령 학급의 장점을 살려 담임으로 맡고 있는 만 3, 4세 푸른반 학급의 수업활동 개선을 해보고자 한다. 핵가족화 되면서 형제, 자매가 있는 가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푸른반의 경우도 22가정 중 11가정만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세 자녀를 둔 가정은 없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달들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가정에서보다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유아들에게 혼합연령 학급의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가지고 더 나은 수업활동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업개선 방안을 이 연구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1. 유아교육기관의 학급구성

유아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기본단위는 학급이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학급을 나누는 것이다. 이 집단 구성에 따라 유아의 여러 발달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문창숙, 2002).

이석순(1996)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집단을 구성하는데 집단구성 목적이 유아들을 동시에 쉽게 지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건전한 대인관계를 수립하여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상호작용에 의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 인지,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유아시기에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시기 유아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급을 구성할 때 남,여 비율이나 연령을 맞추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렇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집단 구성방법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정숙, 2006).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집단구성은 가장 높은 연령의 유아와 낮은 유아의 연령이 12개월 이내 동일한 연령의 유아들로 구성된 단일연령 학급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 유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보육시설에서의 혼합연령 학급이 많아지고 있으며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많이 생겨나면서 가장 높은 연령의 유아와 낮은 유아의 연령이 24개월 차이가 나는 혼합연령 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혼합연령 학급의 개념 및 의미

혼합연령 학급(mixed-age grouping)이란 연령 범위가 일 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 경험, 지식, 능력 및 기술에 있어서도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는 유아들로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Katz et al., 1990). 즉 유아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연령을 혼합하여 함께 교육시키는 학급구성이다.

Ellis와 Siegler(1994)는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집단을 형성하도록 하면 또래보다는 혼합연령 또래들과 함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유아들을 연령에 의해 전형적으로 분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이유는 교사와 부모들이 한 교실에 있는 유아들의 연령이 같다면 동시에 똑같은 것을 배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atz et al., 1990).

어은정(1995)은 혼합연령 집단 구성의 교육적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더 많은 유아의 퇴행이나 어린 연령의 좌절감과 의존심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혼합연령의 인지도가 사실상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구홍미(2005)의 연구에서도 혼합연령 집단이 교육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사나 학부모들의 인지도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어은정(1995)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은 연령의 유아인 경우 어린 유아들의 수준으로 퇴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어린유아의 경우 발달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좌절감이나 의존심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하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형제, 재매보다는 외동의 경우가 많아졌고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1980년대 이후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혼합연령 집단이 더욱 필요한 집단 형태로 여겨지게 되었다(이정분, 2001).

단일연령 학급이 산업화와 대중교육제도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인 학급형태인 반면 혼합연령 학급은 유아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같은 특징을 지닌 학급형태이기 때문에 유아들은 가정 내에서 부족하기 쉬운 다양한 인간관계를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이명환, 2005).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이미 혼합연령 실험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밝히고, 혼합연령집단을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영유아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경우 2, 3세 두 연령을 혼합하여 학급을 구성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유아학교 집단은 형제가 없는 영유아들에게 다른 연령의 영유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혼합연령 학급편성을 통해 권장하고 있다(양옥승 편, 1993). 미국 역시 혼합연령 교실을 점차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et al. 1990).

또한 유아교육학적 프로그램을 전 지구적으로 알린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발도르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혼합연령에 의한 학급편성이 주도적으로 실시되어지고 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영유아의 공동체적 사회의식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육적 접근을 위하여 2세부터 6세까지 혼합연령으로 영유아 집단을 구성한다고 한다(이순형, 2005).

이상과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혼합연령 집단은 그 필요성에 따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어지고 있다.

이정숙(2006)의 연구에 따르면 혼합연령학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조사대상인 153명의 교사 중 단일 연령반의 교사들은 61.4%, 기존의 혼합연령 학급의 교사들은 78.8%가 혼합연령의 집단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혼합연령 집단이 교육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과 같은 분위기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

다. 이와 같은 집단구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혼합연령 집단 구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교사들이 혼합연령 집단이 연령간의 발달 차이로 인하여 수업준비가 어렵고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교육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현주, 1998; 이정숙, 2006; 유준호, 2006).

3. 혼합연령 학급의 교육적 효과

혼합연령학급은 윗 연령과 아랫 연령 모두 양육과 지지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집단이다(Katz & MaClellan, 1997). 혼합연령 학급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일연령 학급에 비해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한금희, 1997; Blasco, Bailey, & Burchinal, 1993; Brownell, 1990; Katz, Evangelous, & Hartman, 1990; Roopnarine & Johnson, 2000).

1) 사회성 발달

혼합연령 집단으로 학급을 구성했을 때 사회성 발달 측면의 교육적인 효과를 살펴보면 단일연령 학급에 비해 혼합연령 학급의 경우 협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며(Elkind, 1986; French, 1984) 여러 연령의 유아들과 상호작용 결과 사회적 기술이 증가하고 좀 더 연령이 높은 유아는 연령이 낮은 유아를 돌보는 행동, 의사소통기술, 지적기술이 발달하며 연령이 낮은 유아들은 사회경험을 거치는 동안 성숙해 지도록 격려된다(Roopnarine & Johnson, 2000, 유준호, 2006 재인용).

이부미(1991), 한금희(1997)는 혼합연령 집단은 다양한 연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친구에 대한 개념이 또래집단보다 빨리 발달하며 연령 이외에도 흥미, 능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친구를 선택하고 다른 연령 유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어서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은 유아는 지도력 향상, 친사회적 행동, 책임감, 자기조절능력, 우호적 상호작용 등이 증가하며, 연령이 낮은 유아들은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을 통해 학습 할 수 있어서 우호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선아(2003)의 연구에서도 혼합연령 집단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고 정서적 유대관계가 복잡하며 구성원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한 역동적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협동심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일연령 집단 유아들보다 여러 가지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양보하는 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2) 인지 발달

여러 연령간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한 윗 연령 또래 유아가 학습의 견인차 구실을 하여 낮은 연령의 유아들의 인지발달에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온다(신은수, 1996).

Berk와 Winsler(1995)는 혼합연령 학급에서 유아들이 활동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조절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연령의 유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유재경, 1999 재인용).

혼합연령 학급의 연령이 낮은 유아들은 연령이 높은 유아들의 유능한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풍부한 인지적 기술을 발달시키며 연령이 높은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학급에서 더욱 활동적이고, 유아의 흥미와 선택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김태희, 1998). 이렇게 인지적 수준이 다른 유아들 간에는 인지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조절과 동화의 과정을 통해 인지적 발달이 촉진된다(Katz, Evangelous, 1990).

3) 언어 발달

혼합연령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유아들의 언어발달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Freedman(1982)은 혼합연령 집단에서 낮은 연령의 유아들은 높은 연령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게 되어 어휘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한금희(1997)의 연구에서도 동일연령 집단에서의 유아는 제한된 어휘만을 가지고 독백을 하게 되면 말의 변화를 거의 시키지 못하고 언어 확장에 있어서는 어른들에게만 의존되는 경향이 높은데 혼합연령 집단의 경우는 낮은 연령의 유아가 높은 연령 유아의 이야기를 듣고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어휘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밝혔다. 비록 놀이에서는 어린 연령의 유아가 주조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큰 아이들과의 활동을 통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이 다르므로 언어발달에 진전을 가져 올 수 있다. 김미영(1994)는 만 3세, 만 5세 동일연령 학급과 혼합연령 학급에서 놀이 관찰을 통해 나타난 언어유형을 비교 연구한 결과 동일연령 집단에서는 요구, 단정, 경쟁, 명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혼합연령 집단에서는 응답, 조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혼합연령 집단구성에는 높은 연령 유아들은 낮은 연령 유아들에 대해 모델링이 되어 본이 되고 가르치거나 돕는 등의 협동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나아가 사회성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 여러 영역의 발달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교사의 역할 및 교수전략

혼합연령 학급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내용과 방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교사의 개입을 줄이고, 유아들이 친구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갖도록 돕는 것은 교사역할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교사들은 연령 혹은 능력간 차별을 보이는 유아들을 위한 협력 혹은 개별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과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김명숙, 2007). 예를 들어 보다 능력 있는 또래와의 협력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연령 간 협력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에 더욱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혼합연령학급에서 연령이 높은 유아와 연령이 낮은 유아는 단순히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아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맺음, 원만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학급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혼합연령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수·학습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강화(peer reinforcement)이다. 영유아의 사회적 강화는 영유아

의 상호작용에서 많이 일어나며 이러한 보상이 행동을 수정하고 지속시켜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또래 영유아가 교육적 목적에 적절한 행동을 하면관심을 주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무시하는 또래강화 전략을 통해 협동과 긍정적인 사회적 접촉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또래모델(peer model)이다. 또래모델은 모방과 관찰학습에 관찰된 모델의 교육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상황에서 낮은 연령의 유아가 사회적 능령이 있는 높은 연령 유아의 행동을 모델로 모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또래지도(peer tutoring)를 들 수 있다. 연령이 높은 유아에게 연령이 낮은 유아를 가르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또래 지도는 연령차가 많은 것보다 적게 나는 또래가 더 의미 있는 수행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학습에서 지도자와 학습자 사이의 연령차는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Linton, 1973; Thomas, 1972; 이정숙, 2006 재인용). 따라서 혼합연령학급에서 효과적인 교수전략으로 활용된다.

넷째, 마지막으로 소집단 학습이다. 혼합연령 학급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전체 활동뿐만 아니라 소집단 학습은 더욱 주의 깊게 편성되어야한다(Freedman, 1982; 박현주,1998; 이정숙, 2006 재인용).

혼합연령 학급에는 대집단 활동보다 소집단 활동을 전개하면 과제수행에 있어서 높은 연령의 유아들이 낮은 연령의 유아들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개인적 기여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이유에서 소집단 학습이 가치 있다는 것이다.

혼합연령의 장점은 앞의 선행연구들을 요약하면 가족이나 이웃집단과 같이 아동간의 폭 넓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상호 협동적이며 어린 유아는 높은 연령의 유아들로부터 사회, 인지적 능력과 행동을 학습하여 보다 성숙한 놀이에 참여 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동간의 발달차이로 인해

학습활동의 계획과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어린 유아들이 높은 연령의 유아들로부터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차가 큰 유아들을 돌보기 위해 교사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혼합연령 집단은 발달 수준과 능력이 다양한 아동들로 구성되므로 적당한 집단 크기와 연령범위, 아동의 비율, 다차원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될 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아동의 자발적 흥미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 교사의 개별적 지도, 발달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놀잇감의 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Solomon, Watson, Delucchi, K.,Schaps, & Battisich, 1998; 문창숙, 2002 재인용).

5. 프로젝트 접근법

1) 프로젝트 접근법의 정의

유아교육에서는 전인적 발달들을 위한 통합교육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유아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유아의 흥미, 경험 및 요구와 교육내용을 통합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교과목들을 통합적으로 재조직하여 가르치는 방법으로 유아에게 보다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Spodek. 1991; Brown, 1991; Elkind, 1988; 고지희, 2007 재인용).

프로젝트 접근법이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유아가 행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라고도 하고 가치 있는 특정 주제를 유아들이 책임을 지고 깊이 있게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즉 교사에 의해 계획된 단원접근법과는 달리 프로젝트 접근법은 유아들

스스로가 흥미와 관심, 자신의 능력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는 교수-학습방법으로써 유아와 교사가 공동 연구자로 함께 활동하면서 선정된 주제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김민정, 2009).

교사와 유아들이 학습 할 가치가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유아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강하게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듀이의 교육관과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이명조, 배미희, 2007; 이기숙, 2006).

2)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

Katz와 Chard(1989)는 교육의 주목적을 유아의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강하게 키워주는 것 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찍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소개하였던 Dewey의 교육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또한 프로젝트 접근법의 목적을 학습자에 대한 목적과 교사에 대한 목적으로 보고 이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첫째, 유아들의 마음을 학교에 몰입시킴으로써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사회화와 놀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유아원이나 유치원 접근 방법 모두 유아의 마음을 몰입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학습을 위한 성향의 발달을 들고 있다.

둘째, 자발적 놀이와 체계적인 교수의 균형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활동은 현존하는 모든 유아교육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접근법과 체계적인 교수법을 보완하여 유아의 능력 발달을 자극하고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들의 활동이 단순한 놀이에 그치지 않고 조직력과 지속력으로 운영되도록 도우며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개입하지만 사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유아와 협의할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짐으로써 덜 구조적이고 비형식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학교 경험은 곧 실제 생활이 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의 경험은 바로 현재 유아들의 삶이 영위되는 현장이다. 일상생활의 경험이 과학, 역사 등의 교과와 같이 범주화되지 않고 통합된 어떤 흐름이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경험 내용은 교과별로 분리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사건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공되어져야 한다.

넷째, 학급을 한 공동체로서 경험하게 된다.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들이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유아에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발달시키며 공동체 의식이 생기도록 돕는다.

다섯째, 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도전으로 여기게 한다. 매일 일정한 교수방법이나 변화 없는 환경에 국한된 교육과정은 쉽게 지루해지며 교사로 하여금 지적 모험심을 상실하게 한다. 문제로 도전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성향은 어른과 유아 모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인 것이다(김혜선, 1998).

이와 함께 Katz와 Chard(1989)프로젝트 접근법이 유아 유아학습의 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프로젝트 접근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정신(mind) 계발'에 있다.

'정신'이란 지식, 기능뿐 아니라 성향(태도), 느낌 등 정서적, 도덕적, 심미적인 감수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프로젝트접근법은 과거의 교육 방식

에 비교해 학습 내용 선정에 유아들이 직접 참여하고 유아들 자신의 호기심과 흥미가 충족될 때까지 관심 있는 활동에 몰입 학습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보다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스스로 창의적인 발견을 하고 나아가 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유아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통해 전인격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Katz와 Chard(1989)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유아학습의 전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3) 프로젝트 접근법의 전개과정

프로젝트 활동의 전개과정은 어떤 정해진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과는 달리 현성 교육과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혀 비구조적인 상태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의, 현장활동, 표현, 조사, 전시회 등을 통하여 프로젝트 각 단계의 특성에 따라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접근법에 따라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크게 준비단계, 시작단계, 전개단계, 마무리단계로 이루어지며(지옥정, 1997) 그 구체적인 설명은 표 1과 같다.

< 표 1 > 프로젝트 접근법의 단계와 구조

구분	1단계 프로젝트 도입	2단계 프로젝트 전개	3단계 프로젝트 마무리
토의	주제에 대한 이전 경험과 현재 지식을 상호 공유하기	현장 활동과 면담을 위한 준비 /현장 활동 검토/ 이차적 자원으로부터 학습	전 과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준비/ 프로젝트 검토와 평가
현장 활동	주제에 대해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현장조사를 위해 교실 밖으로 나가기/ 전문가와의 면담	외부 사람에 의한 평가
표현	이전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그리기, 쓰기, 구성하기, 극놀이	현장 스케치, 노트/ 새로운 학습 표현을 위해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쓰기, 도표, 지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전 과정 요약, 정리
조사	현재 지식에 기초하여 질문 만들기	처음의 질문들을 조사하기/ 현장 활동과 문헌조사/ 발전되고 심화된 질문	새로운 질문에 관한 고찰
전시	주제에 대한 개인경험을 표현한 것 나누기	새로운 경험과 지식에 대해 표현한 것 상호공유/ 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보고	전 과정에 걸친 학습 요약

4) 프로젝트 접근법에서의 교사 역할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 스스로에 의하여 계획되고 진행되므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이다. 따라서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는 유아의 자발성을 유지하면서 활동이 효율적으로 지속되도록 적절히 지도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중심활동이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놀이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교사와 유아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된 효율적인 놀이가 된다.

교사는 유아가 관심 있는 사람이나 사물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도록 환경과 자료를 제시하고 유아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

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이나 주제는 유아에게 친숙한 사건이나 주변세계에서 유출되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실제 경험과 관련되어 활동이 전개되므로 유아가 지역사회의 실제와 협동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교사는 유아들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유아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유아 주도의 자발적인 프로젝트의 전개일 경우 유아는 흥미를 갖는 주변의 사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함께 참여할 유아를 모이게 하고 활동의 계획을 도와준다. 교사는 활동의 방향, 집단의 구성원, 필요한 자료 등을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는 집단의 유아활동을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할 때에 적절한 대화와 방향등을 제시해 주면서 유아들이 확장 활동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교사 주도의 계획적인 프로젝트의 전개일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와 전략이 부족한 유아들을 위하여 교사가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여 유아들에게 제시하여 전개한다. 구성원은 활동의 전개에 어려움이 없는 유아와 참여에 미숙한 유아를 한 집단으로 배정하여 교사는 계획된 활동을 대화를 통하여 소개하고 활동의 방향에 대해 집단의 유아들과 함께 의논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계획을 하면서 활동 방향을 정하고 역할과 일을 능력에 맞추어 분담하여 전개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연령차나 발달의 차이가 나는 유아들 간에는 또래에 의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류지후, 1998).

Ⅲ.연구방법

1. 실행연구(Action research)방법

실행연구는 교수·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서 학생과 교사에게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연구법이다(장현진, 2009). 이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며 이론적인 업적 등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으로(이용숙 외, 2005)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가 실천하는 체계적인 탐구이다. 실행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적 입장과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낸다(Mills, 2007). 전통적인 연구자들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가능한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행연구자들은 교실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교육현장의 실행을 통해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긍정적인 교육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장현진, 2009).

Mills(2007)는 실행연구가 교사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교사 연구자는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깊이 있게 교실현장의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하게 되며, 교사 연구자가 처해있는 학급의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실행연구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인식하고 즉각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학생의 삶과 전문인으로서의 교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실행연구 방법을 통해 교사는 교육과정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교사가 아닌 교육을 실천하는 주최가 되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또는 자신의 수업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봄으로서 교사자신 뿐 아니라 교육환경과 교육대상인 학생들의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행연구방법은 본 연구자가 수행하려고 하는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실행연구를 통해 담임으로 맡고 있는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 유아들과의 수업활동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 실행한 후 평가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활동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혼합연령 학급의 효과적인 수업활동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와 같은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1) 늘푸른 어린이집[1)]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늘푸른 어린이집은 N구에 위치한 병원 직장어린이집으로 2005년에 개원 하였다. 설립목적은 맞벌이 직원들의 육아와 교육문제를 조력해줌으로써 가정복지의 증진과 함께 건강한 직장 및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늘푸른 어린이집은 주택가 안쪽이 위치해 있다. 병원 기숙사건물 1층에 있고 실외놀이시설이 따로 없어 동네 아파트 실외놀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1) 본 연구 대상 어리이집명과 학급, 유아들의 이름은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하였다.

있다. 학급은 만 2세 한 학급, 만 3, 4세 혼합연령 한 학급 이렇게 두 학급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3명(경력 7년차, 2년차, 초임), 부담임 교사, 조리사로 구성되어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일과 운영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이다. 대학병원은 24시간 운영되므로 부모님들의 출·퇴근 시간이 다양해 일과운영 시간이 다른 유아교육기관보다 긴 편이다.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오후 5시 병원셔틀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 귀가하며 3～4명의 유아들만 어린이집에 남아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8시경에 모두 귀가한다.

2) 푸른반 교사와 유아들

푸른반은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으로 선임교사(연구자) 1명과 후임교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인 선임교사는 4년제 영유아보육학과를 졸업하고 7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 3, 4세 혼합연령 1년, 만 1세 1년, 만 2세 2년, 만 5세 2년 등 다양한 연령의 담임교사를 해보았다. 늘푸른 어린이집에는 2009년도 3월에 주임교사로 임용되었다. 후임교사는 4년제 영유아보육학과를 졸업하여 이제 초임에서 벗어나 만 3, 4세 혼합연령을 2년째 맡고 있다. 수업활동을 위한 계획이나 모든 활동 진행은 똑같이 나누어 진행하며 수업준비 역시 함께 의논하여 준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푸른반 유아들은 만 3세 유아 13명(남: 8명, 여: 5명)과 만 4세 유아 8명(남: 2명, 여: 6명), 총 22명의 유아들로 구성되어있다. 유아들은 모두 재원생으로 어린이집 생활에 익숙한 유아들이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만 3세는 후임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고 만 4세는 선임교사(연구자)가 맡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계획과 협의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푸른반의 환경구성은 교실문을 들어서면 왼쪽 벽면은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작은 공간을 넓게 보일 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리 벽면 쪽에 음률, 수, 과학, 언어영역이 배치되어있다. 출입문으로부터 오른쪽에는 역할, 블록, 미술 영역이 배치되어있고 교육활동을 위한 TV와 VTR, 물컵 소독기가 설치되어있다.

3) 푸른반의 하루일과

푸른반은 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22명의 유아들이 함께 생활 하고 있다. 유아들의 등원시간은 셔틀버스로 7시에 등원하는 유아들이 3~4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2차 셔틀버스로 8시 10분에 등원한다. 8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유아들이 등원하여 아침식사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다른 유아교육 기관보다 일찍 등원하는 유아들을 위해 아침식사가 제공되며 주로 죽과 빵, 스프가 주 아침 메뉴이다. 아침을 먹고 나면 양치 및 자유선택활동, 대집단활동, 오전간식, 실외활동, 점심, 낮잠 및 휴식, 오후간식, 특기 활동, 활동 평가 및 귀가지도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푸른반 하루 일과를 정리한 것이다.

< 표 2 > 푸른반의 하루 일과

시 간	활 동 내 용
7:00~8:00	등원 및 정적인 활동
8:00~9:00	아침식사 및 자유선택활동
9:00~9:30	대집단 활동(인사, 하루일과 소개, 이야기나누기..등)
9:30~9:40	배변 및 손씻기
9:40~10:10	오전간식
10:10~11:00	실내 자유선택활동
11:00~12:00	실외활동 및 신체활동
12:00~12:10	배변 및 손씻기
12:10~13:30	점심식사 및 양치
13:30~15:00	휴식 및 낮잠시간
15:00~16:00	특기교육활동 (월: 클레이점토, 화,수: 영어, 목: 체육, 금: 레고)
16:00~17:00	오후간식, 평가 및 귀가지도
17:00~21:00	추가보육 및 귀가지도

오전 9시~12시까지는 대집단활동, 오전간식, 자유선택활동, 실외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 오전 시간에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주 활동이 이루어진다. 실외놀이 활동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며 놀이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점심식사가 이루어진다. 점심을 먹고 양치를 한 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낮잠 및 휴식시간을 갖는다. 유아들이 다른 유아교육기관보다 일찍 등원하는 편이여서 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낮잠시간이 꼭 필요하며 만 4세 유아들도 대부분 숙면을 취한다. 오후 3시~5시까지는 연령별 특기교육(요일별로 월: 클레이점토, 화,수: 영어, 목: 체육, 금: 레고)이 요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후간식을 먹은 뒤 5시 셔틀 버스를 타고 대부분의 유아들이 귀가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만 3,4세 혼합연령학급인 푸른반에서의 수업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혼합연령학급에서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개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2009년 2월 23일 ~ 6월 13일 푸른반 수업활동의 문제점 인식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1차 실행으로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해 본 후 변화과정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2차 실행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 실행 시에는 1차 실행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두 번째 “공룡”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으며 1차 실행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실행 후에도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 전개과정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평가시간을 가짐으로써 초기, 중기 후기의 실행을 통한 교사와 유아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자세한 연구 일정은 표 3과 같다.

< 표 3 > 푸른반의 연구 일정

기간	연 구 진 행 일 정
2009년 2월 23일 ~ 6월 13일	▸ 수업활동의 문제점 인식 ▸ 개선방안 모색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문헌조사 - 2008년도 교육활동집 ‘네번째 이야기’, 교육일지, 혼합연령에 관련된 논문

2009년 6월 15 ~7월 17일	▸**1차 실행:** “장수풍뎅이” 프로젝트활동 계획 및 실행 -변화된 계획을 도입해 봄으로써 결과 관찰 및 분석
7월 18일~ 8월 16일	▸**1차 실행 평가** - 수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2차 실행 준비
2009년 8월 17일 ~ 9월 25일	▸ **2차 실행: “공룡” 프로젝트** -계획과 실천, 반성의 반복을 통해 혼합연령에서의 효과적인 프로젝트 활동 방법 모색 및 적용
9월 26~9월 30일	▸**2차 실행 평가** -프로젝트 활동 전개과정 계획 및 실행에 대한 변화 분석
2009년 10월 2010~1월	▸1차, 2차 실행을 하면서 혼합연령학급에서의 수업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와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1) 만 3, 4세 푸른반 수업활동의 문제 인식 및 개선방안모색

본 연구자는 2009년 3월 푸른반을 맡게 되면서부터 초임시절 혼합연령 학급 운영시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때처럼 실수 하지 않기 위해 동료교사와 회의 시간을 자주 가졌다. 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표준 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연간 교육계획안을 작성하였고, 팀티칭으로 푸른반이 운영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연령의 수업준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유아들과의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수업활동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협동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혼합연령 학

급에서 각자 연령별 활동으로만 치우쳐졌다. 한 공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마치 금을 그어놓고 만 3세반, 4세반을 분류하여 각각 생활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 이유는 유아의 연령별 발달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발달상황에 맞는 수준별 활동을 하기위해 교사들이 활동을 구분지어 따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유아들의 발달 상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팀티칭 운영학급의 장점을 살려 연령별 수준활동을 진행한 것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혼합연령 집단의 장점을 살려 함께 하나가 되는 학급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교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단일연령 학급처럼 수업을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수업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하였다. 공간상의 문제로 혼합연령 학급이 구성되었지만 혼합연령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이유의 혼합연령 학급이 아닌 교육적 목표를 가진 혼합연령 학급을 구성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2008년도 늘푸른 어린이집 활동자료집과 연간 교육계획안, 그리고 교수·학습 관련 도서와 혼합연령학급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며 혼합연령학급의 교육적 효과와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혼합연령학급유아들에게 적합한 활동으로 프로젝트활동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Katz와 Chard(1989)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적합하고 혼합연령 유아들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는데 적절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혼합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여러 종류의 과제를 포함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침 푸른반 유아들도 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 시점이여서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보기로 하였다.

2) 1차 실행: 첫 번째 프로젝트 '장수풍뎅이'

연구자는 2009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만 3,4세 유아들과 '장수풍뎅이'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다. 4월 곤충전에 다녀와서 선물로 받은 장수풍뎅이 유충이 성충이 되면서 유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동료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1차 실행 주제로 '장수풍뎅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였다. 혼합연령학급에서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처음 실행되는 프로젝트 활동이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생각모으기, 생각 나누기와 주제망 구성 등 이야기나누기나 대집단 활동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 동료교사와 함께 보며 수업의 개선점과 처음 하는 프로젝트 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만 3, 4세 유아들의 흥미도와 활동참여도를 분석해 보기 교육일지 평가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다. 또한 활동 하면서 이루어지는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의 상호작용내용도 관찰일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 각 연령별 유아들의 활동 수준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실행 후에는 혼합연령학급에서의 수업활동의 개선점과 문제점을 다시 되짚어보고 2차 실행시 개선방안을 교사회의와 문헌조사를 통해 모색해 본 후 2차 실행을 준비하였다.

3) 2차 실행: 두 번째 프로젝트 '공룡'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세워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두 번째 프로젝트 주제선정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만 3세 유아가 고성의 공룡박물관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유아들이 공룡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공

룡에 대한 프로젝트활동을 유아들이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25일 까지 '공룡'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였다. 공룡에 대한 주제가 정해지면서 교사회의를 통해 주제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봄으로써 교사들도 전문적 지식 쌓고 교사 주제망을 계획해 보았다. 프로젝트 시작 전 교사의 사전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공룡관련도서와 고성박물관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전준비를 완료하였다. 모든 활동은 사진촬영과 함께 교육일지에 기록해 두었으며 교육일지를 통해 활동구성과 유아들의 활동 수준, 참여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저널을 통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서 유아들의 관심주제나 심층적 활동 수준을 기록해 두었다. "공룡" 프로젝트 활동 후에는 교사와 유아의 심층면담을 통해 유아들의 반응과 변화 그리고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3) 평 가

1, 2차 실행과정을 거쳐 마무리 과정까지 교사와 유아에게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 수업활동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업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모은 동영상과. 사진촬영, 관찰일지, 면담일지. 교육일지, 교사저널 등을 통해 만 3,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수업활동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해 봄으로써 교사와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1차와 2차 실행을 거치면서 교사와 유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

4. 자료수집 및 방법

1) 참여관찰

참여 관찰법은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연구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현장 활동을 의미한다. 참여의 유형에 대해서는 Spradley(2006)는 비참여, 수동적 참여, 중간수준참여, 적극적 참여, 완전참여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교실 수업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완전참여의 형태로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담임교사이므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2)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사진과 동영상은 언어적 기술과 진술에 제공 할 수 없는 현장의 장면, 증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관찰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해 준다(이용숙, 2005).

본 연구자가 학급의 담임교사다 보니 유아들과의 활동 중에는 다른 영역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둠으로써 모든 영역의 활동들과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고 연구의 결과분석에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었다. 특히 모든 활동의 사진들은 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유아들의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간혹 활동 중에 사진 찍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는 보조교사나 동료교사에게 부탁하여 모든 활동의 사진은 찍어두어 주제별로 자료화 하였다.

3) 면담

본 연구는 만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면담보다는 활동 후 평가를 할 때 집단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유아들에게 수업 활동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로서의 면담형식을 취하였다. 면담은 대부분 활동 후에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유아들 뿐 아니라 동료 교사와도 이루어졌다.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서 유아가 혼합연령학급에서 수업활동 개선 방안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발달한 측면이나 관심과 흥미도,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았고 동료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는 유아들과의 수업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교수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며 유아들 뿐 아니라 교사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특히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혼합연령 학급을 위한 수업개선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교수방법이나 수업준비도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화 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4) 교사 저널

저널 쓰기는 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실천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의미 한다(박은혜, 200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인 교사가 혼합연령에서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전문성과 반성적 사고가 요구되므로 활동에 대한 저널 쓰기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고안하여 글로 남김으로서 자료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주었다. 매 활동이 끝날 때, 문제점이 발견될 때,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교사와 유아의 반응과 변화를 기록해 두었다.

5) 교육일지와 관찰일지

교육일지를 통해 매일 이루어지는 활동의 계획과 평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둠으로서 만 3, 4세 유아들의 흥미도와 활동참여도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의 상호작용내용도 관찰일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사진도 첨부하여 각 연령별 유아들의 활동 수준을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연구 기간 동안 수집된 동영상이나 사진, 교육일지, 면담일지, 관찰일지, 교사저널 등을 통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 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하고 수업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동료 교사와의 회의와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교사와 의논하거나 참고 문헌을 조사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두 번째 연구문제로 만 3, 4세 푸른반에서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와 교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든 활동의 사진자료, 동영상 전사자료, 교육일지, 면담자료, 교사저널 등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구분한 후 작성된 범주에 따라 적합한 사례를 추출하여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의 효과적인 수업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았다.

Ⅳ. 결과 및 해석

연구자는 만 3, 4세 혼합연령인 푸른반에서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해 수업활동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혼합연령학급에 적합한 활동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1차 실행과 2차 실행 과정을 통해 수업활동의 개선과 교사와 유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

1)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서의 프로젝트 활동

연구자는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에서의 수업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시기 기본적으로 인지해야할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단원 주제중심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연구자 역시 3월~6월에는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단원 주제중심수업을 연령에 맞게 수준별로 진행하였었다. 하지만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였고 유아들의 흥미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업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문헌조사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이 혼합연령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로젝트접근법을 체계화한 Katz와 Chard(1989)는 프로젝트접근법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을 자극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며, 균형 있

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유아시기의 자발적인 놀이를 격려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다양한 능력과 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집단 활동에 기여하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유아들이 점점 능숙해 진다고 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접근법은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적합하고 혼합연령 유아들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는데 적절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혼합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여러 종류의 과제를 포함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프로젝트접근법은 현재까지도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이 실시되어지고 있고 유아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요구한다. 또한 유아들 스스로가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고 스스로 알고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사고의 확장까지 도모하며 특히 혼합연령의 아동들에게 더욱 적합한 교육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김혜선(1996)은 만 4, 5세 혼합연령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접근법의 주제와 기존 유치원 주제의 관련성, 전통적인 접근법과 병행방법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바 있다. 이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수업진행 과정에서 하위 주제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유아의 발달단계와 집단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혼합연령 집단은 연령의 격차에서 오는 서로 다른 사고과정과 관심에 따라 단일 연령 집단 보다 다양한 주제접근 및 새로운 시도, 다양한 지식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은희(1996)도 혼합연령을 중심으로 다상징적 접근을 통한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사고과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바 있으며 서현옥(1999)은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혼합연령 집단과 단일연령 집단 간의 사회적 행동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차이를 연구해본 결과 혼합연령에서 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수행능력 역시 혼합연령 집단이 더 높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게 혼합연령 집단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은 주제망의

구성, 프로젝트활동에 대한 구성, 정보추출능력들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 3,4세 혼합연령학급인 푸른반의 효과적인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교육운영 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다.

2) 1차 실행: ‘ 장수풍뎅이 ’ 프로젝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2009년 6월 15일~7월 16일 까지 1차 실행 프로젝트활동이 전개되었다.

1차 실행의 목표는 유아들의 발달상황을 고려한 수준별 활동 보다는 만 3, 4세 푸른반 유아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고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아들의 흥미가 고려된 주제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푸른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활동 진행과정이다.

(1) 유아 흥미 중심의 주제정하기

푸른반의 만 3, 4세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아중심의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1차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주제선정은 의외로 어렵지 않았다. 4월 현장학습으로 곤충전을 다녀오면서 선물로 받은 장수풍뎅이 유충이 6월 달이 되면서 부터 성충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곤충의 변태과정에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단원주제중심활동 중에도 각자 키우는 장수풍뎅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동료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유아들에게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다음은 교사회의중 일부이다.

연구자: 프로젝트 주제를 장수풍뎅이로 하는 게 어떨까요?

동료교사: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렵지 않을 까요? 준비시간도 얼마 없는데,,
연구자: 우리가 프로젝트 활동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 유아들이 가장
흥미로 워하는 주제로 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동료교사: 아이들의 관심이 요즘은 장수풍뎅이에게 쏠려 있으니까
주제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자료수집 부터 먼저 빨리 해야겠어요,
연구자: 우선 우리도 키우고 있는 유충이 있으니 유아들의 성충도
가져와서 함께 키워보며 관심을 좀 더 유발해 보도록 하죠,
동료교사: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9, 6, 8, 교사회의 中)

회의가 끝나자마자 연구자와 동료교사는 장수풍뎅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서적, 사진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이시기 장수풍뎅이에 대해 매일 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등원하면 교실의 장수풍뎅이 유충부터 살폈다. 그래서 이야기나누기 시간 “너희들이 매일 장수풍뎅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데 우리 장수풍뎅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라고 묻자 모두 이구동성으로 “네” 라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장수풍뎅이에 대한 주제가 정해지면서 프로젝트활동 준비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유아, 교사 모두에게 조금은 낯선 프로젝트 활동 이었지만 유아들은 자신이 요즘 궁금해 하던 장수풍뎅이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 자체에 기대감을 많이 보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과학영역>
주빈: 선생님, 우리 장수풍뎅이 언제부터 알아봐요?
교사: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지요,
주빈: 빨리 해요, 번데기가 장수풍뎅이 되겠어요, 빨리 알아봐요,

준영: 난 책 샀어, 가져올까?

교사: 그래, 가져와서 친구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자,

선생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

준영: 네, 난 읽어봐서 아는데,,친구들한테 읽어주세요,

(2009, 6, 10, 자유선택활동 中)

유아들은 '우리 동네'에 대한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과학영역의 장수풍뎅이 유충을 매일 관찰하며 성충이 되기 전에 장수풍뎅이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1차 실행으로 '장수풍뎅이' 활동이 시작되었다.

(2) 만 3, 4세 유아들과 함께 주제망 짜기

그동안 활동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늘 교사였다. 따라서 이야기나누기시간이나 모든 활동들은 주제를 정한 교사주도로 진행되었었다. 특히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유아들 보다는 교사의 의견과 생각대로 자료를 모으고 유아들에게 알려주는 정보전달식의 이야기나누기였다. 하지만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하면서 주제망을 구성하기 위한 생각나누기시간은 교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귀 기울이게 하였다. 처음 경험하는 프로젝트활동이지만 만 4세 유아들은 적극성을 보이며 장수풍뎅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만 4세 유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만 3세 유아들도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교 사: 장수풍뎅이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니?,

유아들(6세): 선생님 우리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애벌레는 흙만 먹어요?

우리꺼는 장수풍뎅이가 되었어요, 가져올까요?

우리 같이 키워요, 장수풍뎅이 키워요,

교 사: 그래 같이 키워도 좋을 것 같다, 다들 장수풍뎅이로 다 자랐나 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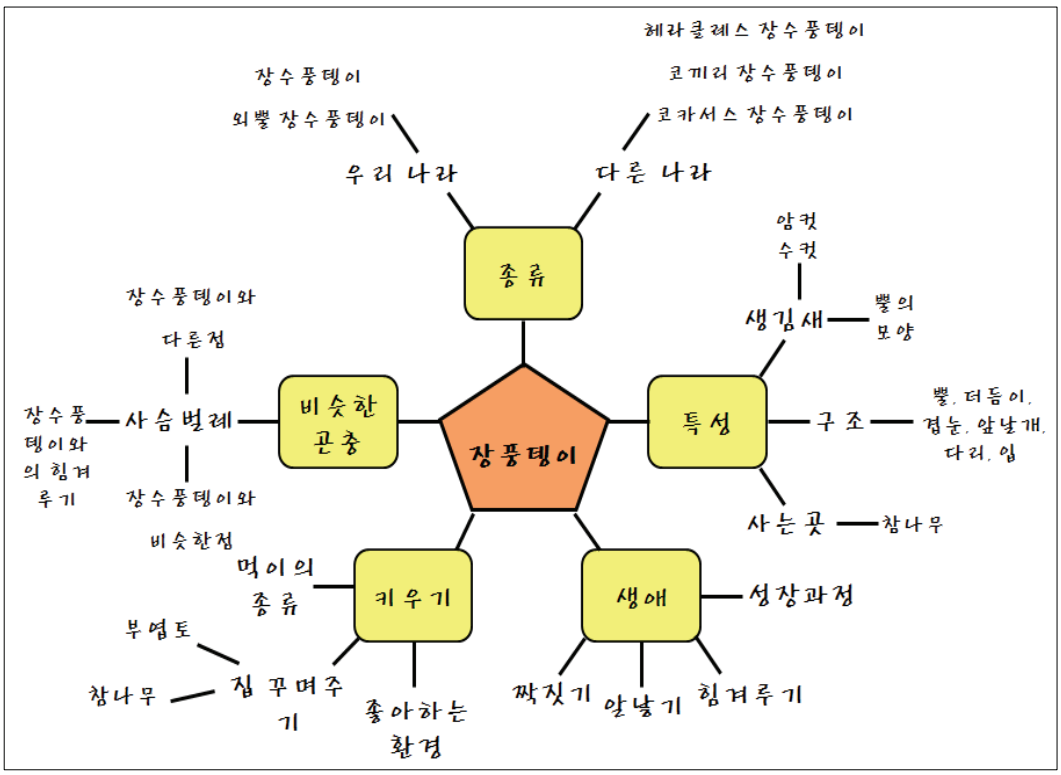
상윤(5세): 우리꺼는 날아다녀요, 뿔도 있어요,

호재(5세): 진짜야? 우리꺼는 언제 나오지? 내 것도 빨리 장수풍뎅이가 됐으면 좋겠다,

(2009, 6, 16, 유아들과의 생각나누기 中)

만 4세 유아들은 장수풍뎅이를 기르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 3세 유아들은 장수풍뎅이 자체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윗 연령 형님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푸른반 학급을 운영하면서 유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나누기시간에 참여하는 보습은 처음이었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들을 직접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사에게는 유아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유아들과 함께 구성한 '장수풍뎅이' 활동 주제망이다.

【그림 1】 '장수풍뎅이' 교사-유아 주제망



주제망이 구성되어지면서 부터는 유아들과 함께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 함께 하는 프로젝트 활동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활동 진행은 장수풍뎅이 키우기, 특성, 생애, 종류, 비슷한 곤충 순서대로 하였다.

활동이 진행되면서 유아들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졌다. 주로 서로 키우고 있거나 책에서 알아낸 정보를 교류하였다. 특히 만 4세 유아들은 만

3세 유아들에게 키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려주며 과학영역의 장수풍뎅이 유충을 매일 함께 관찰하였다. 또한 언어영역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시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찾아주기도 하였다. 교사역시 유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함께 활동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은 만 4세 - 만 3세 유아 뿐 아니라 유아-교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고 늘 활동의 주도자가 교사였다면 프로젝트 활동은 함께 하는 활동이 되었다. 그리고 영역별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졌다 .마무리 단계에는 유아들과의 활동평가 후 특별한 전시회보다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다양한 활동사진을 교실과 계단에 전시해 줌으로써 유아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부록 참조)

3) 1차 실행: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 평가

(1) 1차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수업활동의 개선점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이 2009년6월 15일~7월 16일 까지 전개되었다. 푸른반은 혼합연령학급으로 만 3, 4세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고는 있지만 각 연령별로 수준별 활동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자유선택활동 이외에는 함께 진행되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제선정과 함께 활동의 진행을 교사와 유아가 함께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만 4세 유아들은 만 3세 유아들의 모델링이 되어 어린 유아들의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와 능동적인 활동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이 집에서 키우던 장수풍뎅이를 가져와 친구들과 함께 관찰을 하기도 하고 관련도서를 구입하여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스스로 탐색

하고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3주 이상이 되자 만 4세 유아들은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비슷한 곤충인 사슴벌레까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어 하는 반면 만 3세 유아들은 더 이상 흥미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루해 하기 시작하였다. 푸른반의 경우 만 3세 유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사슴벌레까지 구체적인 확장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활동의 장점인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1차 실행 프로젝트 활동의 문제점

① 교사-유아, 만 3세-만 4세 유아의 반응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만 3세 담임교사와 유아들 모두 처음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미흡함과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담임교사인 연구자 역시 만 5세 단일연령 학급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나 더 어린연령에다가 혼합연령인 학급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활동을 해본 경험은 없었다. 따라서 다양한 유아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고 활동을 유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유아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기록한 연구자의 저널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유아들은 장수풍뎅이에 대한 생각나누기를 하면서 오로지 지금 키우는
> 장수풍뎅이에게만 관심을 보인다. "장수풍뎅이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니?,
> 장수풍뎅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니? 라는 질문에 유아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키우는 장수풍뎅이 유충이나 성충에 대한 이야기나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선생님, 우리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애벌레는 흙만 먹어요?.." 등등. 다른 여러 종류의 장수풍뎅이들이나 사는 곳 등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키우는 상황에서의 질문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장수풍뎅이도 친구들이 있을까?" 라며 여러 종류의 장수풍뎅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보려고 하지만 유아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같이 키우면 친구 할 수 있어요. 나는 민지꺼랑 같이 키워야지." 라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다양한 활동의 주제망이 나올지 걱정이다.

(2009. 6. 16. 생각나누기 후 연구자 저널)

처음 하는 프로젝트 활동에 유아들은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만 치중하고 교사는 어떻게든 다양한 주제와 관심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생각대로 유아들은 잘 따라오지 못하였다. 연구자의 이전 경험(만 5세와의 프로젝트)을 회상하며 그때의 브레인스토밍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대로 유아들이 반응하지 않자 연구자 역시 당황하게 되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경력이 없는 동료교사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푸른반을 함께 운영하는 동료교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동료교사: 프로젝트 활동이 너무 어려워요.

연구자: 어떤 점에 어려움을 느껴요?

동료교사: 생각나누기는 얼마나 해야하는지, 유아들의 생각을 어떻게 유목화 하여 주제망으로 구성해야하는 건지.. .

선생님이 하시는걸 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제가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아이들 수준에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무엇보다 생각지도 않은 유아들의 질문이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5세와 6세의 반응차이가 커서 어느 수준으로 활동을 진행해야 할지도 어려워요,

연구자: 선생님이 프로젝트 활동을 유아들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진행 방법 자체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아이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 역시고 만 5세 단일연령 학급에서의 경험이 다이기 때문에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프로젝트활동 사례집들을 보면서 한번 교사교육을 진행해봐야 겠어요,

교 사: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2009, 6, 23, 교사면담 中)

프로젝트 활동이 열흘 정도 진행되자 동료교사는 위와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시작 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알아보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부딪치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연구자나 동료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료 교사는 진행방법 흐름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연구자는 유아들의 반응과 심층적인 활동 유도 및 만 3, 4세 유아들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어려움을 느꼈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되고 3주 이상이 되자 만 4세 유아들은 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비슷한 곤충인 사슴벌레까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싶어 하는 반면 만 3세 유아들은 그 흥미를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지루해 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장수풍뎅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었다.

교사: 여기에 어떤 사진들이 있니?

다이(6세): 장수풍뎅이다.

교사: 어~ 우리가 키우는 장수풍뎅이와 다르게 생겼네
이 곤충은 무엇일까?

수진(5세): 뭐냐? 모르겠다. 장수풍뎅이예요?

교사: 맞아. 장수풍뎅이 친구들이야.
얘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래.
(중략)

준영(6세):책에서 사슴벌레도 봤어요.

동현(6세): 나두 봤어. 뿔이 두 개지? 우리 사슴벌레도 알아봐요
장수풍뎅이랑 싸우면 누가이길까?

교사: 그러게,,진짜 궁금하다. 우리 사슴벌레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채은(5세): 아니요~~징그러워요.

상윤(5세):자동차 알아봐요

교사: 그래 우선은 장수풍뎅이들의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본 후
다음에 무엇을 알아볼지 그때 생각해 보자

(2009. 7. 6. 이야기나누기 中)

위의 사례와 같이 만 3세 유아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장수풍뎅이 친구들에 대한 활동에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종류의 장수풍뎅이의 이름도 익히고 여러 종류의 장수풍뎅이가 되어 역할놀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사슴벌레 활동까지 연계되면서 부터는 적극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활동의 장점인 심층적인 활동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였다. 처음 계획대로 라면 비슷한 곤충인 사슴벌레의 생김새와 생애, 사는 곳과 사육 환경까지 진행해보면서 장수풍뎅이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

인 활동으로 연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만 3세 유아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의 생김새 비교, 사는 환경의 차이점과 같은점 등을 간략히 알아보고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처음으로 실행한 1차 실행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과 교사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만 3세-만 4세 유아들과의 다양한 반응으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하였다.

② 주제중심 활동에 가까워지고 있는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활동이라 하면 아동들이 흥미로워하며 궁금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들이 아동중심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윤은주, 2006). 그러나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아동중심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 활동이 어느덧 주제중심 활동에 더 근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가 정해지면서 생각나기시간이 되었다.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지만 장수풍뎅이의 사육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제한되어 있었다. 교사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장수풍뎅이의 친구들이라든지 힘겨루기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유아들은 현재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상황에만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연구자는 유아들과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고 심층적인 활동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교사 주도적인 생각나누기를 유도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교 사: 장수풍뎅이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니?,
장수풍뎅이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니?
유아들: 선생님 우리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애벌레는 흙만 먹어요?
우리꺼는 장수풍뎅이가 되었어요, 가져올까요?

우리 같이 키워요, 장수풍뎅이 키워요,

(중 략)

교사: 우리가 키우는 장수풍뎅이도 친구들이 있을까?

우리처럼 나만 있는게 아니라 내 친구 민지, 세훈이가 있듯이

장수풍뎅이도 친구들이 있을까?

유아들: 친구 만들어줘요, 내거랑 민지꺼 같이 키워야지,,

내 것도,, 다같이 키울까?

교사: 그래, 그런데 같이 키우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책에 보니까 같이 키우면 싸우기도 한다던데,,

그걸 힘겨루기라고 한 대, 정말 싸우기만 할까?

동현: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하람: 왜 싸우는지 알아봐요, 근데 어떻게 싸우지?

교사: 그래, 그럼 장수풍뎅이의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다,

(2009. 6. 16. 생각나누기 中)

위의 사례와 같이 유아들은 교사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주로 사육환경에 관심을 보였지만 교사는 “우리가 키우는 장수풍뎅이도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장수풍뎅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유도 질문을 하였다. 하지만 유아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였다. 교사는 사실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어요?” 등의 반응을 기대 했지만 유아들은 사육환경이나 현재 키우는 상태의 장수풍뎅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유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수풍뎅이 ‘키우기’와 ‘비슷한 곤충’에 대한 주제였다. ‘비슷한 곤충’의 경우 프로젝트 3주차에 들면서 만 4세 유아들 중심으로 제시된 주제여서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주제로 범주된 장수풍뎅이의 ‘종류’,

‘특성’, ‘생애’ 부분은 장수풍뎅이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봐야할 내용이라고 교사가 판단되어 이 주제를 유아들에게서 유도하였다(p.41 ‘장수풍뎅이’ 주제망 참조).

사실 교사는 더 다양한 주제를 유아들로부터 유도하고 싶었지만 생소한 주제이고 첫 번째 프로젝트 활동이여서 유아들의 사고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서 마무리하였다. 결국 교사가 원하는 방향의 주제망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더욱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 못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프로젝트 활동의 주도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진행된다면 ‘주제중심활동과 프로젝트 활동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활동 사례집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낙엽’이라는 프로젝트 활동 진행과정을 보면 ‘낙엽그리기, 관련 노래 부르기, 낙엽 노래지어보기, 관련동화 보기, 낙엽 만들어보기...’등 주제중심활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라는 프로젝트 정의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역시 적극적인 유아들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은 교사가 계획한 주제망과 순서의 틀 안으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끼워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탐구하며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프로젝트 활동의 핵심인데 어느덧 주제망에 짜여진 주제 중심대로 활동을 진행하려는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③ 만 4세 위주의 활동전개

첫 프로젝트 활동의 관심과 흥미는 주로 만 4세 유아들로부터 시작되었

다.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수풍뎅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보았던 만 4세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연스럽게 만 4세 유아들의 흥미 위주로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만 3세 유아들은 연령의 반응과 수준의 차로 자연스럽게 점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 대부분 만 4세 유아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야기한다.

교사: '장수풍뎅이' 에 대해 어떤 것이 궁금하니?
유아(6세): 뿔, 애벌레, 흙속에서 자요,
(키워봐서 알고 있는 듯,,)
유아(6세): 근데 흙속에서 어떻게 숨 쉬지? 선생님 흙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교사: 우리는 못 쉬는 데 장수풍뎅이는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땅속에서 잘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어떻게 숨을
쉬는지 알아봐야겠다,
유아(6세): 다른 곤충도 땅속에서 자나?
유아(6세):아~~ 개미도,,,
유아(6세): 우리 장수풍뎅이는 막 날아다녀,
교사: 어떻게 날아다지지? 장수풍뎅이도 날개가 있나?

(2009. 6. 18 . 질문 목록 만들기 시간)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만 4세 유아들 위주로 사고 확장이 일어나면서 교사도 만 3세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이해와 반응이 빠른 만 4세 유아들 위주로 생각나누기나 질문목록 만들기 시간을 통해 사고를 확장해 나가고 심층적이 활동을 구성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만 3세는 유아들은 점점 반응과 관심이 줄어들고 활동에 대한 지루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론

상의 근거로는 혼합연령일 때 프로젝트 활동이 더 적합하다고 하여 수업활동 개선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선정하였는데 단일연령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학급운영에서는 오히려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자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초기에는 유아와 교사가 함께 이끌어가고 만 3, 4세 유아들의 공통 관심주제로 함께 하는 활동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수업활동보다 유아들이 흥미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유아중임 활동인 프로젝트 활동 진행상의 문제점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에서의 더욱 활발한 프로젝트활동 진행을 위해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3) 2차 실행을 위한 개선방안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장수풍뎅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사전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 푸른반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교사 모두에게 조금은 낯선 활동 이었다. 동료교사는 처음으로 유아들과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 중간에 교사교육을 다시 해야만 했던 해프닝도 벌어졌다. 따라서 교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짐으로써 유아들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해 보고 유아들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주제에 관련된 사전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한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미흡한 부분이 사전준비이다. 어린이집의 긴 하루 일과 속에서 교사들이 사전준비를 많이 해두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사는 활동의 주도자가 아닌 안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 최소 2주 전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유아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주고 유아들의 문제제기에서부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프로젝트 활동의 전개가 교사주도의 주제중심 활동으로 전이되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아들이 정한 주제로 활동을 진행한다고 다 유아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이 아니다. 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탐구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문제해결의 길을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 힌트를 주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유아들의 문제해결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유아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었기 때문에 유아중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제에 관련하여 교사가 주도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제중심활동에 불과하다.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는 유아중심활동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유아가 알고 싶은 것은 교사와 다를 수 있다. 유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성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질문과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다. 때론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선은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진행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유아들은 스스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반응이 빠른 만 4세 유아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 3세의 반응과 생각, 발달 상황을 세심히 살펴 활동내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에서에서 활동의 주도가 되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만 4세이다. 그러다 보니 진행 마무리 단계쯤에서는 만 3세 유아들

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되지 않아 흥미를 빨리 잃게 되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만 3세 유아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만 4세 유아들이 만 3세를 함께 이끌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각나누기시간 주로 만 4세가 주도권을 잡게 되므로 생각나누기는 처음 주제가 정해졌을 때 대집단으로 한 번 정도 진행하고 그 안에서 나온 하위 소주제에 대해서는 관심분야별로 연령을 섞어 소그룹을 구성한 후 놀이시간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도 교류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활동에 대해 만 3세 유아들도 좀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상 협력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렇게 초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실행을 계획해 보도록 하였다.

4) 2차 실행: 두 번째 프로젝트 " 공 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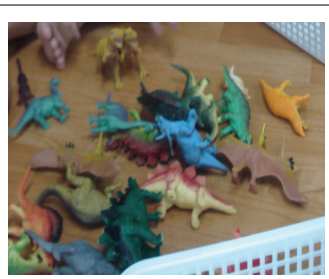
(1) 유아들이 제시한 주제정하기

첫 번째 프로젝트 활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사의 사전준비도 부족하였고 모든 유아의 반응을 고려하지 못하여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동진행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2차 실행의 주제선정부터 많은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중 만 3세 유아가 고성 공룡박물관으로 휴가를 다녀와 공룡책과 사진 그리고 공룡모형을 어린이집에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푸른반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자유선택활동시간 함께 놀이하면서 공룡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만 3세 유아들이 더 흥미를 보이기

시작 하면서 공룡에 대한 주제를 먼저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유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공룡'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유아와 함께하는 사전준비

두 번째 프로젝트 역시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주제가 순식간에 정해졌다. 하지만 초기 프로젝트활동의 문제점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유아와 교사 모두 준비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당시 여름방학 기간이 막 지나서 '여름방학/여행'에 대한 주제 중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룡에 대한 주제선정이 휴가를 다녀온 한 유아의 공룡박물관 여행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활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유아들은 각자 공룡에 대한 주제 동화책들을 모아오기 시작하였고 공룡모형도 가져오면서 프로젝트 시작 전에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미리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준비해온 활동 자료들이다.

		
[사진 1] 동영상 자료	[사진 2]다양한 공룡책	[사진 3] 다양한 공룡모형

이 외에도 다양한 사진자료나 카드가 있었고 공룡 모형도 여러 가지 크기별로 많은 양이 모아졌다. 가장 많이 가져온 것은 그림책 이였다. 백과사전에서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 까지 다양한 종류의 도서가 자원으로 들어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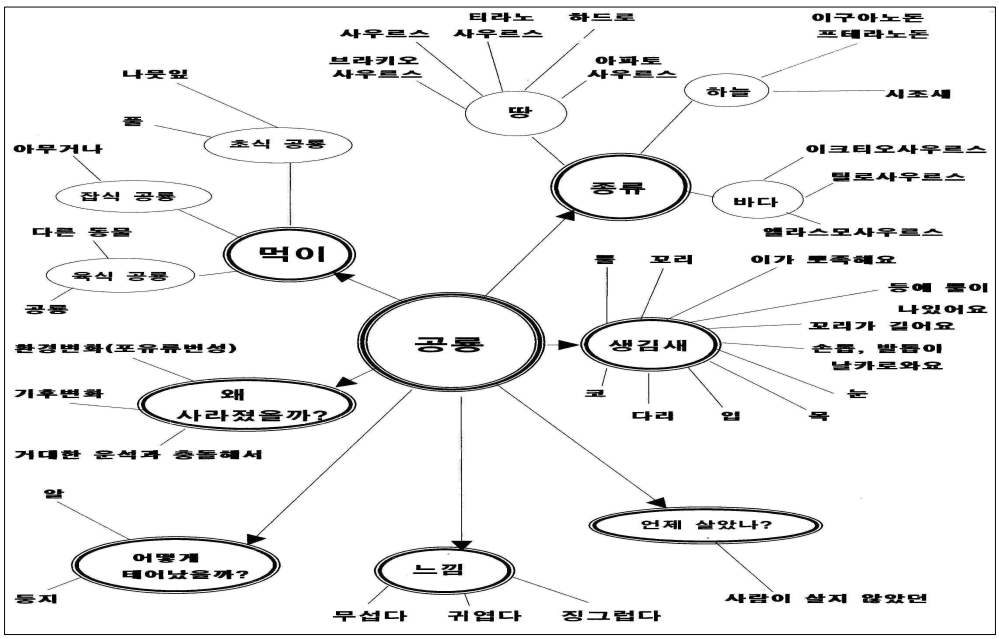
아들의 흥미에 따라 주제를 선별하여 골고루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유아들뿐 아니라 교사역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전 준비에 돌입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미비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교사의 준비성과 계획성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전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각자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며 수시로 교사회의를 통해 만 3, 4세 유아들 모두에게 흥미롭고 각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갈 준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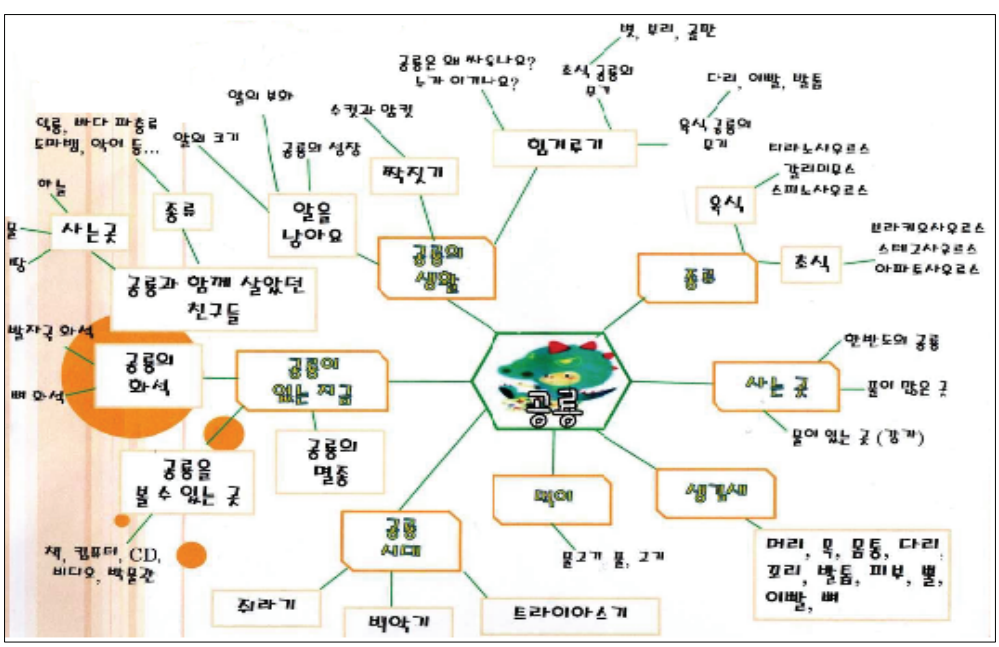
(3) 유아들의 호기심으로 가득한 주제망

2009년 8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6주간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었는데 이번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유아 교사 모두 하나가되어 협력하는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 먼저 주제망을 구성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시간 유아들은 사전준비를 같이 해보면서 알게 된 것과 궁금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서로 이야기하려는 유아들이 많아 소란스럽기는 하였지만 유아들의 활동 참여도는 높았다. 대집단으로 이루어진 생각나누기 후에는 자유선택활동시간 소그룹으로 나누어 만 3, 4세 유아들과 교사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기고 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예상과는 다른 여러 가지 유아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의 생각나누기 후 유목화를 통해 구성한 '공룡' 프로젝트 활동 주제망이다. 교사의 예상과 많이 달라진 유아와의 주제망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공룡' 교사 예상 주제망



[그림 3] '공룡' 교사-유아 주제망



‘장수풍뎅이’ 활동 시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들은 주제망을 간단하게 구성해 보았는데 유아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얻은 내용들을 유목화 시켜 정리해본 교사- 유아의 주제망은 무척 풍성해 졌다. 사전 준비를 많이 해 두어서 인지 유아들의 호기심과 활동에 대한 적극성은 프로젝트 활동 진행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4) 적극적인 유아들의 활동전개

주제망이 구성되면서 유아들이 주체가 되어 소주제 진행과정도 정해 보았다.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공룡의 종류’(먹이, 생김새 함께 다룸), ‘공룡시대’, ‘공룡의 생활’(사는 곳 함께 다룸), ‘공룡이 없는 지금’ 순으로 진행하였다.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공룡의 생활과 생애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활동 시 장수풍뎅이를 키워보면서 장수풍뎅이의 생애(애벌레→번데기→ 성충 → 짝짓기 → 알→ 애벌레)를 직접 관찰해 보았기 때문에 ‘공룡’ 주제에서도 공룡의 생활과 생애에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보였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힘겨루기에서 초식공룡들이 육식공룡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무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다. 다음은 자유선택활동시간 언어영역에서 유아들의 대화를 관찰한 내용이다.

충무(5세): (공룡 백과를 보며) 야 스테고사우루스 위에
있는 거 뭔지 알아?
상윤(5세): 몰라,,털이였나?
충무(5세): 골판 이거든? 꼬리에는 뿔도 있어, 왜 있는 줄 알어?
상윤(5세): 응,, 육식공룡 때려버릴라고,,
충무(5세): 한반도의 공룡에서 타르보사우르스가 공격하면 이걸로

공격하는 거야. (책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한다.)

컴퓨터로도 봤지?

교사: 충무야, 그럼 초식공룡들은 모두 무기를 가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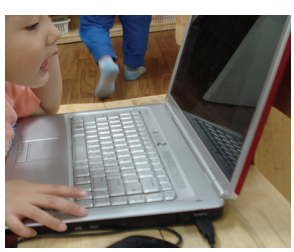
충무(5세): 네,, 딱딱한 머리로도 싸우고 뾰족한 뿔로도 싸워요.

교사: 우와~ 충무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니?

충무(5세): 책을 마니 보니까 그렇죠? 컴퓨터도 있고,,

(2009. 9.10. 자유선택활동시간)

이렇게 유아들은 각자 관심 있는 영역에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사와 함께 알아본 부분도 있지만 유아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심층적인 내용까지 스스로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는 유아들이 알고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공룡의 이름과 특성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교실에도 그동안 연결하지 못했던 인터넷을 연결하여 유아들과 실시간 검색해 보기도 하면서 유아들의 탐구학습에 도움을 주었다.

		
[사진 4] 공룡 메모리게임	[사진 5]공룡길 만들기	[사진 6] 컴퓨터 검색 “무엇이든 알아 보아요”

[사진 7] 육식, 초식공룡 분류해보기	[사진 8] 같은 종류의 공룡끼리 모여라~♪	[사진 9] 공룡 이름 따라 쓰기

위의 활동들 외에도 다양한 대소그룹 활동들이 전개되면서 유아들은 지속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수시로 알아보았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그동안 푸른반에서 진행되었던 활동들을 전시하여 맑은반 동생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유아들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 동생들에게 자신들의 작품과 활동들을 설명해주며 함께 활동해 보기도 하였다.

[사진 10] 활동 전시회

이렇게 두 번째 프로젝트 '공룡' 활동도 마무리가 되었다. (자세한 영역별

활동 내용은 부록참조)

5) 2차 실행: '공룡' 프로젝트 활동 평가

2009년 8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6주간의 '공룡' 프로젝트 활동이 마무리되고 연구자와 푸른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동료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다. 1차 실행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2차 실행에 적용해 봄으로서 나타난 개선점과 '공룡' 활동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1) 2차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수업활동의 개선점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의 수업개선을 위하여 2차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해보면서 나타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① 미리 계획된 사전준비

1차 실행 때 빠르게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되면서 사전준비의 미흡함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었다. 그러나 2차 실행 시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준비기간으로 2주간의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과 함께 공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모으며 유아들에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두 번째 프로젝트 활동 주제로 '공룡'이 정해지면서 교사회의를 통해 사전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이다.

연구자: 공룡에 대한 주제가 많이 다루어져 쉬울 것 같지만 내용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동료교사: 맞아요. 이름도 그렇고 멸종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연구자: 무엇보다 5세 유아들에게도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동료교사: 실제로 공룡 박물관 다녀온 호민이(만3세)를 시작으로 주제가 선정되었으니 이번에는 5세 유아들이 더 흥미로워 할 것 같아요.

연구자: 먼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가요? 시작 전 교사가 먼저 공룡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림책 자료나 백과사전 , 인터넷사이트 정도는 알아놓았어요.

동료교사: 전 공룡프로젝트를 했던 다른 유치원 활동 자료를 준비 했어요

(중략)

연구자: 오늘 준비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미리 숙지하도록 하고 공룡에 대한 자원목록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야 겠어요. 가정에도 분명 공룡에 대한 자료나 책이 있을 거예요.

동료교사: 그리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공룡 애니메이션도 있더라고요. EBS 에서 방연한 것도 알아보도록 해요.

연구자: 그럼 부족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오늘 나눈 내용숙지 후 5일날 교사 주제망을 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죠.

(2009. 8. 3. 교사회의 中)

이렇게 교사들은 프로젝트 활동 진행 전 사전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각자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며 수시로 교사회의를 통해 만 3, 4세 유아들 모두에게 흥미롭고 각 연령별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전개해나갈 준비를 하였다. 유아들도 준비 기간 동안 다양한 자원들을 가져와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유아들이 가져온 다양한 도서들은 교사들이 어려운 공룡 이름을 미리 알아두고 전문적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와 동료교사는 유아들이 가져온 책을 통해 육식, 초식

공룡의 종류와 이름을 알아두고 나누어 보기도하였다. 동료교사는 그 연령의 수준을 고려하여 입체적(3D)이고 많은 공룡의 종류를 소개하며 소리까지 나오는 인터넷사이트(http://dinopark.net/)를 알아보았고 연구자와 함께 현장견학 장소도 여러 군데 알아본 후 답사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사전 준비기간 구체적인 활동들과 내용들을 미리 구상해 보고 유아들의 반응을 예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공룡'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해 보고 싶어졌다. 다음은 사전준비기간 교사저널이다.

> 오늘은 유아들과 함께 할 활동들을 미리 정리해보고 계획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료교사의 변화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동료교사가 초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 두 번째 프로젝트 진행에도 힘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유아들을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 주로 문헌 쪽을 알아본 연구자와는 달리 다양한 사이트와 동영상, 게임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이해도 많이 늘었다.
> 동료교사는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서 때로는 야근할 때도 있고 많은 정보를 숙지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오히려 배우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였다.
> 이렇게 동료교사가 적극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활동 진행을 도와주니 이번에는 활동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
> (2009. 8. 14. 연구자 저널)

유아-교사 모두 하나가 되어 사전준비를 함으로써 시작 전부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고 유아들 역시 빨리 공룡에 대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며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매일 물어보았다.

② 유아들의 흥미위주로 구성되는 주제망

‘공룡’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프로젝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전 경험에 대한 이야기나누기 시간 공룡박물관을 다녀온 만 3세 유아는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자신이 보았던 공룡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예상대로 유아들은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동네 공원에서 공룡을 본 이야기, 공룡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책을 본 이야기, 공룡 알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나누기 시간 전 유아들의 흥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제망을 구성하기 위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룡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가정에서 적어올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었다. 어린이집에서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유아들이 대부분이여서 주로 그림으로 그려보았었는데 표현하기가 명확하지 않아 유아들이 어려워하였다.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활동으로 질문목록을 적어오도록 하였다.

교사: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어, 여기에 뭐라고 써있니?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해줄래?
민경(6세): 공룡에 대해 궁금해요,
교사: 그래, 여기에 공룡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엄마 아빠랑
함께 적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 알아보자,
준영(6세): 우리엄마는 공룡 모르는데,,아빠도,,,
민지(6세): 모르니까 궁금한 거 적어 보는 거지,,
호재(5세): 난 공룡이름 적을 거야,

상윤(5세): 난 초식공룡... 육식공룡도..

(2009. 8. 18. 이야기나누기 시간)

처음 내주는 과제여서 인지 유아들은 어떻게 해올 것인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이 가져온 질문목록들을 중심으로 생각나누기를 해보았다. 1차 실행 '장수풍뎅이' 활동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유아들은 "공룡도 친구가 있나요?, 공룡도 짝짓기를 하나요?, 알도 낳아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어디서 살고 있어요?"등 다양한 질문들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아들 흥미 위주의 주제망을 완성하였다.

1차 실행 때는 구체적인 활동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교사가 유도한 소주제들이 주제망을 구성하였는데 2차 실행 시에는 교사의 주제망보다 구체적이고 유아들이 알아보고 싶어 하는 소주제들 중심으로 주제망이 완성되었다.(p.56, '공룡' 주제망 참조)

③ 만 3, 4 세 모든 유아들의 적극적 활동 참여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교사의 준비와 초기 첫 번째 프로젝트 활동에서 만 4세 유아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고려하여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었다. 미리 준비된 사전 계획과 유아들 흥미위주로 주제망이 완성 되면서 진행 활동 역시 푸른반 대부분의 유아들이 무척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 할 수 있었다.

1차 실행 때처럼 만 3세 유아들이 심층적인 활동이 이루어질수록 지루해하거나 어려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유아들은 끝까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무리 전시회 활동까지 능동적으로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유아들이 협동하는 모습이었다.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가 되어 활동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2차 프로젝트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점

2차 실행 '공룡'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들과 하나가 되어 활동이 진행되어져 무척 재미있었다. 그러나 활동 진행상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공룡'이 실존동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유아들의 혼동이었다. 유아들이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처럼 장수풍뎅이를 직접 키우고 관찰 할 수 있었듯이 공룡들도 직접 관찰하고 탐색해보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무척 실망하고 아쉬워하였다.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 견학을 통해 실제 크기의 공룡모형들과 공룡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유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하였다. 기회가 되어 공룡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룡들이 실존했던 삶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공룡화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나 공룡화석 발굴에 대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면 유아들의 호기심과 아쉬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주제선정이었다. 다음에 또다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한다면 유아들이 흥미로워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전문가도 쉽게 초빙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보도록 해야겠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아들의 반응에 대한 수용의 한계점이다. 유아들의 반응과 흥미, 호기심과 생각들은 각각 개인의 차가 있고 푸른반처럼 혼합연령 학급이라면 연령별의 차이도 있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유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지거나 환경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제한해야 하는 지는 교사의 몫이다.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동떨어진 것 같지만 활동을 진행하다보면 연계가 되어 사고확장이 이루어 질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이것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유아들의 반응과 의견의 수용에 대한 제한점을 느끼게 되었다. 푸른반 유아들의 경우 익룡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길 원하였지만 원의 행사로 기간을 더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존에 계획된 활동까지만 진행하였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공룡의 친구들인 익룡과 해룡에 대한 심층적인 활동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2.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전개한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와 교사에게 미친 영향

만 3, 4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푸른반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걱정과는 달리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보였다. 기존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을 진행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며 협력하는 유아들의 모습,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과 주변을 세심히 살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 교사-유아들의 적극적인 활동참여

1차, 2차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교사와 유아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도 이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이 각각 이루어지고 교사 주도의 주제중심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들은 수동적이고 대부분의 질문이 활동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활동

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활동들을 먼저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수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유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들 흥미위주로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교사 역시 이제는 연령별로 각자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면서 각 연령별 특성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각자 맡은 유아들에게만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유아들을 서로 아울러 살피며 유아들에게 안내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기 위한 활동참여도가 높아졌다.

2)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 하는 협력 활동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활동하고 놀이하면서 교사-유아, 유아-유아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사는 놀이시간 유아들의 놀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뿐 아니라 때로는 놀이집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놀이의 진행을 도와주거나 적절한 제언을 통해 놀이를 발전시키기도 해야 한다(이숙재, 2000).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푸른반은 혼합연령 학급으로 형님들이 때로는 교사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유아와의 눈높이를, 그리고 만 4세 유아들은 동생인 만 3세 유아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주며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

(1) 교사-유아 눈높이 맞추기

교사와 유아가 함께 구성하는 프로젝트활동에서는 눈높이 활동과 상호작용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하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배우고 문제나 과업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한다. 즉, 교사는 유아와의 공동학습자 임을 명심하도록 한다(김진영, 백혜리, 최윤정, 2001). 연구자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프로젝트 1차 실행부터 유아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며 활동을 진행하였고 유아들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상윤(5세):(장수풍뎅이 암컷 머리띠를 쓰고)나는 엄마장수풍뎅이야.
하람(6세):(수컷 머리띠를 쓰고) 난 뿔이 있으니까 아빠 할꺼야.
이리와, 우리 짝짓기 하자.
(하람이는 상윤이 위에 엎드린다.)
상윤(5세): 무거워, 내려와
하람(6세): 우리 알 낳으러 가야 돼!
(블록영역으로 가서 벽돌블록으로 알 낳을 곳을 만들어준다.)
상윤(5세): 10개 낳을까? 애벌레도 있어?

(2009. 7. 2. 자유선택활동 놀이 中)

장수풍뎅이 생애에 대해 알아보면서 짝짓기 모습을 동영상으로도 보고 교실에서 키우는 장수풍뎅이의 짝짓기 모습을 우연히 실제로 보았던 유아들은 짝짓기 모습에 무척 흥미로워 하였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유아들의 이

러한 놀이는 사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난감하였다. 처음 짝짓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친구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 있어요” 라며 놀이를 중단시켰었다. 그런데 “짝짓기 해야지 알을 낳는데.. 애벌레도 볼 수 있는데..”라는 유아의 말을 듣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놀이를 성인의 눈으로 바라본 연구자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유아들이 어떻게 놀이하는지 지켜보았더니 짝짓기 후 알을 낳기 위한 장소를 블록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중에는 애벌레, 번데기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며 서로 애벌레의 모양을 설명해주고 자세를 고쳐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함께 놀이에 참여하여 “어디에 알을 낳으면 좋을까? 어떤 곳에 알을 낳았더라?” 라며 알을 낳기에 좋은 환경에 대해 유아들과 알아보고 놀이를 확장시켜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짝짓기 하는 모습자체가 유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었겠지만 유아들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일 뿐이었다. 그 다음에 알을 낳고 알을 낳을 환경을 꾸며주며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가 되는 모습, 번데기가 되어 번데기 방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아보고 와플블록으로 번데기 집까지 만들어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놀이는 단순히 역할놀이뿐만 아니라 블록놀이, 그리고 실제로 키우고 있는 장수풍뎅이가 알을 낳는지 수시로 관찰하게 함으로써 과학영역활동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유아들은 어떻게 알에서 깨어나는지 애벌레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여 번데기가 되는 것인지 장수풍뎅이의 일생에 대해 무한한 관심을 보였다.

[사진 11] 역할-블록영역 “나는 암컷 장수풍뎅이!	[사진 12] 과학영역 장수풍뎅이가 알 관찰한 것을 기록해보아요.	[사진 13] 과학영역 장수풍뎅이의 생애를 알아보아요.

만약 교사가 계속 이러한 놀이를 제지하고 중단하기만 하였다면 유아들은 장수풍뎅이의 생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깊이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교사는 항상 유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유아의 시각으로 함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실수도 있었지만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활동 전개 시 늘 유아의 시각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본 연구자뿐 아니라 함께 푸른반을 운영하는 동료교사에게도 나타났다. 다음은 두 번째 ‘공룡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마친 후 푸른반 만 3세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이다.

연구자: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마치고나니 어때요?

동료교사: 뭔가 공허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바쁘게 아이들과 활동한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을 닮아 가는지 뭔가 허전해요. 공룡을 실제로 못 봐서 그런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서운해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니까 같이 속상해져요.

연구자: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마치며 교사의 역할이 변화된 것 같아요?

동료교사: 네, 사전에 미리 많이 준비하고 유아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제가 우리 아이들처럼 공룡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예요. 사실 준비하면서 몸이 많이
피곤하긴 했지만 활동들이 무척 재미있어요. 장수풍뎅이도 재미
있었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뿌듯해요. 자신감도 생기고,,^^
프로젝트가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 이였는지 몰랐어요.
아이들과 함께 알아가는게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5세 아이들도 잘 참여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연구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정적으로 선생님이 함께 해주니까
더 힘이 나고 몸은 좀 피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이번엔 공룡을 실제로 볼 수 없어 아쉬움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우리 다음엔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을 또 더
채워나가 아이들과 함께 다시 놀아 보죠.

(2009. 9. 20 교사면담 中)

위의 면담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는 유아들과의 프로젝트 활동에 함께 빠져들고 있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하기 싫어했다면 연구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 느낀 문제점과 어려움을 외면하기 보다는 유아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씩 실타래를 풀 듯 풀어나갔더니 어느덧 유아의 시각에서 활동들을 즐기고 있었다.

(2) 만 4세-만 3세 유아 서로의 눈높이에서 협력하기

눈높이 맞추기는 교사들뿐 아니라 푸른반의 형님인 만 4세 유아들에게

도 나타났다. 수준별 활동을 할 때나 첫 번째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활동에만 집중하였었는데 공룡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는 만 4세 유아들이 만 3세 유아들을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며 서로의 생각들을 많이 교류하였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만 3,4세 유아들이 조를 이루어 재활용품으로 스테고사우루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다. 교사는 역할분담과 재료만 제시해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참여하였다.

<1조> 몸통만들기

민지(6세): 스테고사우루스 등의 골판는 요구르트 병으로 만들까?

현준(5세): 아니, 우유곽으로,,

민지(6세): (그림 자료를 보며,,)스테고사우루스 봐봐, 세모 모양인데,,

현준(5세): (우유곽 위를 가리키며)여기가 세모모양 같으니까
여기로 하면 되잖아,

민경(6세): 아~ 그래서 돌기모양,, 그래 그럼 우유 곽으로 몇 개 만들까?
같이 세어보자,

현준(5세): 내가 셀래,

민경(6세): 그래, 니가 숫자 세면서 누나한테 하나씩 줘,,붙이게,,
너두 붙여보고 싶은면 누나한테 얘기해,,

<2조> 우유 곽으로 다리 만들기

준서(5세): 다리는 어떻게 붙여?

동민(6세): 기다려봐! 내가 테이프 가져올게,,
(시범을 보이며)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니가 붙일 수 있지?

준서(5세): 내가 잡아줄게 형이 붙여,

동민(6세): 못하겠어? 그럼 여기 붙잡아 줘,

(2009. 9. 15. 협동작품-스테고사우루스 만들기)

유아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다. 예전 같았으면 잘 모르는 만 3세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만 4세 유아들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형님들이 동생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도 많았지만 예전보다 서로 충분히 의논하여 만들다보니 시간이 오래 지체되기도 하였지만 유아들이 끝까지 마무리 하였다. 이 공룡이 완성되기 까지 만 3, 4세 유아들이 서로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았다면 교사의 개입이 많아졌을 것이다.

[사진 14] 협동작품-재활용품으로 스테고사우루스 만들기
재료: 신문지, 우유곽, 요구르트병, 비닐, 락카

(3) 교사로 하여금 연구하게 만드는 유아들의 아이디어

프로젝트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아들과의 생각나누기는 꾸준히 활동 마다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되면서 유아들은 모든 영역에서 주제에 대한 생각과 탐색이 소주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공룡 프로젝트 활동 시에는 '공룡이 어떤 곳에서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공룡을 볼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공룡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는지' 등은 유아들에게 끝까지 탐색과제가 되었다. 공룡의 특성, 종류, 생김새에 대한 관심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공룡의 삶이나 멸종, 공룡을 알 수 있게 된 계기등은 유아들의 끊임없는 탐구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유아들의 끊임없는 탐색으로 교사가 오히려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유아들이 '공룡도 가족과 함께 사는지, 짝짓기를 하는지, 짝짓기를 하면 어디에 알을 낳는지' 등 실제적으로 볼 수 없는 공룡의 삶의 모습을 무척 궁금해 하였다. 장수풍뎅이처럼 실존하는 것이 아니 여서 유아들은 더욱 궁금해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교사는 유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공룡들의 삶을 유아들이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았다.

과학영역에 공룡마을을 꾸며 보는 활동이었다. 먼저 유아들과 VTR 자료 "한반도의 공룡"을 보면서 공룡들의 삶을 엿보았다. 양육강식의 세계이지만 가족의 사랑과 같은 동족의 우정도 느낄 수 있는 영상물 이였다. "한반도의 공룡"을 본 후 에는 공룡들이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야기 나누어보았다.

교사: 우리 '한반도의 공룡' 을 보았었지? 공룡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니?
준영(6세): 호숫가에서 물 마시는 걸 좋아해요,
타르보사우루스가 나오는데,,
민경(6세): 그건 배고프니까 그렇지,,
채은(5세): 그래도 아기 스테고사우루스가 불쌍해,
교사: 그래, 아기 공룡이 조금 불쌍했지, 그런데 육식공룡들은
배고파서 아기공룡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초식공룡처럼 풀을 먹지 못하거든,

(중 략)

교사: 그래 우리가 한반도의 공룡을 보면서 공료들이 사는 곳을
볼 수 있었지, 우리도 공룡 마을을 교실에 꾸며볼까?

주빈(6세): 어디예요? 공룡은 너무 큰데,, 우리 그럼 자리 좁아요,

교사: 그럼, 작은 공룡마을을 꾸미면 되지, 어디가 좋을까?
과학영역 교구장 위가 비어있네, 저긴 어떨까?

지우(6세): 좋아요, 근데 뭘 만들지?

교사: 뭘 만들어 주면 좋을까? 그건 너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빈(6세): 먼저 물, 호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무랑 풀도,,

민경(6세): 알 낳을 곳도 필요해, 아기공룡 집도,,

교사: 그래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럼 우리 자유선택활동 시간 미술영역애서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고 과학영역에 공룡마을을 꾸며보도록 할까?

(2009, 9, 3 이야기나누기 시간 中)

이렇게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시간 공룡마을을 꾸며보기로 하였다. 공룡마을을 꾸미기 위해 관심 있어 하는 6명의 유아가 모였다. 이 유아들이 주축이 되어 공룡이 살기 좋은 '공룡마을 꾸미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공룡마을 꾸미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이다.

미술영역의 재활용품들을 꼼꼼히 살피는 유아들,, 피트병, 과일 덮게 메추리알판 등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빈이는 꾸밀 곳을 왔다 갔다 하며 크기와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다, 만드는 동안 유아들은 서로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한 20분이 흐르자 유아들은 만든 작품들을 가지고 과학영역으로 이동한다, "이 피트병은 뭐야?" 라는 교사의 질문에 "

나무잖아요" 라고 이야기 하며웃는다, 그리고 메추리알판 위에 여러 동그라미들이 무척 궁금하여 무엇이냐고 묻자 민경이는 알 낳는 곳 이예요, 라며 과학영역으로 꾸미러 간다,

(2009, 9, 3 관찰 내용 中)

푸른반 유아들은 관찰내용처럼 공룡마을을 꾸며주기 위해 공룡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만 4세 여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유아들이 서로 협력하여 꾸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유아들이 만든 공룡마을이다.

←피트병 나무와 공룡 새끼의 집

←알을 낳는 곳,알에서 부화한 공룡새끼

[사진 15] 공룡마을 꾸미기- 미술, 과학영역

유아들은 초식공룡들을 위한 다양한 풀과 나무 그리고 다양한 공룡들을 위한 호수, 알 낳는 곳과 공룡집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유아들 스스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시로 감탄하게 되었다. 어디서 저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들이 나오는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공룡 마을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 사흘 동안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의견을 제시하고 보완하며 수시로 환경을 바꾸어 주었다.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아들도 관심을 보이고 대부분의 유아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였다. 결국 공간이 너무 좁아 이 활동은 역할/블록영역에 까지 확장되었다. 이번에는 유아들이 다양한 크기의 공룡모형과 스스로 공룡이 되어보면서 공룡마을을 꾸며보았다. 다음 활동사진은 작은 공룡마을 꾸미기가 확장되어 소꿉/ 블록영역까지 전이되어 유아들이 자유선택활동 시간 공룡마을 놀이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사진 16] 공룡들이 사는 곳 2-블록, 역할 영역
공룡들이 살 수 있도록 블록으로 집을 지어주고 나무도 만들어 붙여주고 호수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직접 공룡이 되어 공룡가족을 이루었다.

유아들의 공룡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은 교사로 하여금 활동을 계획할 때 유아의 흥미를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곧 또 다시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연구자인 교사에게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교사로 하여금 활동에 대한 연구를 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공룡의 멸종' 에 대한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이다. 언어영역에서 공룡책을 함께 보며 공룡의 멸종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민지(6세):(화산폭발장면을 보며)선생님 이게 뜨거운 물이예요?

교사: 그래, 이야기나누기 시간 너희들에게 알려 주었던 용암이라는 것인데 화산폭발로 공룡들이 살 수 있는 곳들이 모두 이 뜨거운 용암으로 덮여져서 공룡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민지(6세): 뜨거워서 죽었구나, 아팠겠다,

상윤(5세): (빙하기 장면을 보며)얘는 추워서 죽었어요?

교사: 어떤 선생님들은 지구가 너무 추워져서 먹을 것이 없어 공룡들이 살아 날수 없었다고도 이야기 하고 있어,

상윤(5세): 그럼 그 선생님은 공룡을 봤어요?

교사: 아니, 공룡은 사람들이 살기 전에 있었던 동물이어서 공룡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

충무: 안보고 공룡을 어떻게 알아요?

교사: 그게 너무 신기해, 우리가 공룡을 모르고 살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땅속에 있던 커다란 공룡뼈를 발견하면서 이런 큰 동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

충무:(웃으며)공룡을 찾았어요?

(중략)

교사: 다음에는 공룡이 어떻게 화석이 되고 그 화석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

유아들: 네,,

충무: 우리도 화석 만들 수 있어요?

교사: 그럼 화석 만들기도 한번 해볼까?

유아들:(웃으며)네~~~~

(2010. 9. 15. 자유선택활동시간- 언어영역)

이야기 나누기 시간 대집단으로 먼저 공룡의 멸종에 대해 알아보았었다. 공룡의 멸종 이야기는 몇몇 아이들에게 공룡은 실제로 볼 수 없는 동물임을 확인해야하는 시간이 되어 유아들이 조금은 아쉬워하는 마음이 컸다.

공룡활동의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한창 관심과 애착이 많아졌던 유아들은 공룡의 멸종에 아쉬워하였다. 몇몇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간 공룡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왜 공룡들이 멸종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물어보았다. 유아들의 공룡 멸종에 대한 아쉬움이 커져 갈수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공룡을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공룡이라는 멋진 동물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교사가 “공룡화석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라는 질문을 하자 유아들은 금방이라도 자신들이 공룡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처럼 관심을 보였다.

실제 화석은 현장견학을 통해 본 경험은 있지만 대부분 공룡 발자국이나 공룡의 뼈 일부분이여서 유아들에게 공룡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리고 화석에 대한 활동자체가 유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유아들과 함께 활동하고 놀이를 하다 보면 활동의 전개가 갑자기 수정되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 교사를 연구하게 만들기도 한다. 화석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만 3, 4세 유아들과 쉽게 이해하고 알아 갈수 있도록 다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유아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주기위해 화석 만들기 활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화석을 만들어 보는 활동은 유아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진행하기 위해 만 3세 동료교사와 자주 논의 하였다.

연구자: 화석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석고로 만드는 게 있던데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 순서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동료교사: 그럼 점토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유아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마르면 가볍고,,
연구자: 흰색 점토보다는 찰흙이나 황토색이 나는 데코 점토가 좋을 것

같아요.

동료교사: 찰흙은 공룡 모형으로 본을 뜰 때 달라붙기 쉬우니 데코 점토가 좋을 것 같아요.

(중 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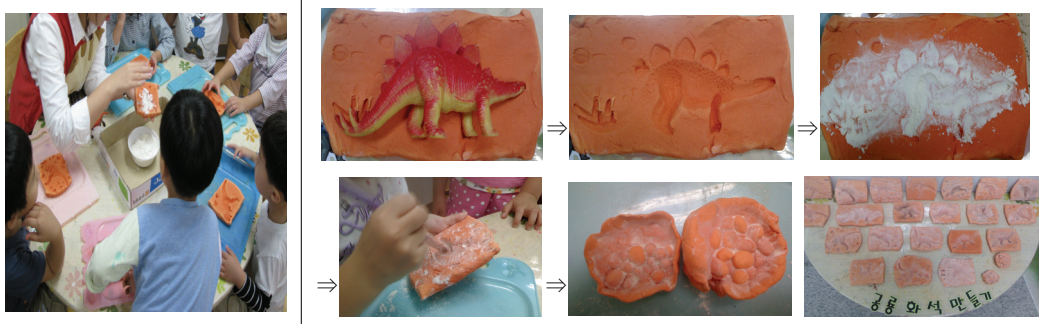
연구자: 교실에서 화석 활동시 발굴에 쓸 흙 대신 밀가루를 뿌려 밀가루흙속에서 화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붓을 이용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동료교사: 나중에 모래 놀이터에서 놀이해도 재미있겠어요, 화석 발굴 게임 같은거,,

연구자: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룡의 멸종에서 슬퍼했던 마음들이공룡 화석 발굴자가 되어 무척 신나할 것 같아요.

(2009. 9. 11. 교사회의 中)

교사의 연구와 아이디어로 실제 화석 만들기 활동은 유아들이 무척 재미있어하였다. 만 3, 4세 유아 모두 함께 만들 수 있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도 쉬운 활동이었다. 유아들이 만든 화석은 놀이터에 가지고 가서 공룡화석 발굴 게임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아들이 예상외로 소장하고 싶어 하여 공룡화석 액자꾸미기로 전환하였다. 어떤 유아들은 공룡화석뿐 아니라 현장견학에서 보았던 공룡알 화석을 기억하고 공룡알 화석도 만들어 주었다.



[사진 17] 공룡화석 만들기

아이들과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
데코점토와 공룡모형,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공룡화석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을 하나씩 전개해나가면서 교사들은 자유놀이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심층적인 활동 연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 유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활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기도 하였다.

(4) 관찰자이자 문제제시자인 유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의 관찰력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기존의 주제중심의 수준별 활동을 할 때는 수동적이고 교사의 주도 방향에 따라 활동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아들의 반응과 관심에 따라 활동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유아들은 무엇이든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탐색하며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주위를 유심히 살피며 다음에는 어떤 것에 대해 알아볼지 골똘히 생각해 본다는 점이다.

“장수풍뎅이, 공룡”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차 유아들의 관찰력은 굉장히 세심해졌다. 다음은 이에 대한 사례이다. 프로젝트 활동을 마무리 하

고 잠시 주제중심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때 낮잠 자기 전 양치를 하면서 VTR 영상물을 보고 있었다.

(밤에 나무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장면)
하경(5세): 봤어? 방금 날아간 새가 뭐야?
동민(6세): 부엉이잖아.
영준(6세): 올빼미거든? 선생님 올빼미지요?
교사: 선생님 친구들 양치 도와주느라 못 봤는데..
영준(6세): 돌려보면 되잖아요.
교사:(결국 돌려보며) 부엉이 같은데? 귀 같은 모양이 있는거 보니까.
은채(5세): 알아보면 되잖아요!
영준(6세): 그럼 내일 알아봐요!
교사: 그래, 선생님도 알아보도록 할게, 너희들도 알아보세요.

(2009. 9.24 '강아지똥' 관람 中)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새인지 궁금해 하는 유아들의 모습에 놀랐다. 사실 연구자는 유아들과의 양치지도를 마치고 정리하기 바쁜 시간이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유아들의 요구에 의해 돌려보긴 하였지만 사실 올빼미인지 부엉이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고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별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은 정확하고 확실한 새의 이름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결국 인터넷정보를 검색해 보았고 실제로 한 만 4세 유아는 국립공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올빼미와 부엉이의 사진자료를 구해 와서 친구들에게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유아들은 어느덧 궁금한 것들에 대해 언제든지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시하며 알아보는 적극적인 탐험가가 되어있었다. 유아들은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않고 자세히 알아본 후 궁금증을 해결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늘 푸른 어린이집 만 3, 4세 혼합연령인 푸른반 학급에서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실행연구이다. 연구자는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효과적인 수업활동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선정하였고 2009년 6월 15일부터 11월 21일 까지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효과적인 수업활동으로써 두 차례의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푸른반의 수업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서 프로젝트 접근법이 교사와 유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1)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안

연구자는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에서의 수업활동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운영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접근법을 체계화한 Katz와 Chard(1989)가 프로젝트접근법이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을 자극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며, 균형 있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유아시기의 자발적인 놀이를 격려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다양한 능력과 연령의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며 집단 활동에 기여

함으로써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유아들이 점점 능숙해 진다고 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접근법은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적합하고 혼합연령 유아들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는데 적절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혼합연령 집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여러 종류의 과제를 포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김혜선(1996)은 만 4, 5세 혼합연령 유아 32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접근법의 주제와 기존 유치원 주제의 관련성, 전통적인 접근법과 병행방법에 대해 질적 연구를 한바 있다. 이는 프로젝트 접근법의 수업진행 과정에서 하위 주제 및 그에 따른 다양한 활동이 유아의 발달단계와 집단 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혼합연령 집단은 연령의 격차에서 오는 서로 다른 사고과정과 관심에 따라 단일 연령 집단 보다 다양한 주제접근 및 새로운 시도, 다양한 지식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은희(1996)도 혼합연령을 중심으로 다상징적 접근을 통한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사고과정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힌바 있으며 서현옥(1999)은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혼합연령 집단과 단일연령 집단 간의 사회적 행동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차이를 연구해본 결과 혼합연령에서 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프로젝트 수행능력 역시 혼합연령 집단이 더 높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의 효과적인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교육운영 방안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차 실행으로 2009년 6월 15일~7월 16일 까지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이 전개되었다. 4월 현장학습으로 곤충전을 다녀오면서 선물로 받은 장수풍뎅이 유충이 6월 달이 되어 성충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곤충의 변태과정에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며 주제중심활동 중에도 각자 키우는 장수풍뎅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동료교사와의 회의를 통해 유아들에게 적합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활동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늘 교사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들은 주제를 정한 교사주도로 진행되어 졌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는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유아들 흥미중심의 활동을 진행해보기 위해 유아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활동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만 3세와 4세 유아들이 각각 반응의 차이를 보였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만 4세와는 달리 만 3세 유아들은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은 서로 협동할 수 있고 반응의 차이를 수용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1차 실행 평가를 통해 인식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제점은 프로젝트 활동 자체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조금은 낯설었고 유아-교사, 만 3세 유아-만 4세 유아의 반응차이에 따른 진행과정상의 어려움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는 유아들의 흥미위주로 주제를 정하지만 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가 뒷받침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에서 프로젝트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미흡한 부분이 사전준비이다. 어린이집의 긴 하루 일과 속에서 교사들이 사전준비를 많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교사는 활동의 주도자가 아닌 안내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전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전준비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복연(2003)의 연구에서도 프로젝트 접근법의 시작 단계에서의 어려움으로 유아의 연령별 개인차와 다양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교사의 경력차에 따른 어려움들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유아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교사 상호간의 협의나 교육을 통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서영숙, 이남정, 안소영(1996)은 유아들과 주제망을 짜기 전에 교사

들끼리 사전에 예비 주제망을 짜고 유아들의 반응을 예견하고 준비함으로써 유아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처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교사교육을 통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사전준비 기간도 연장함으로써 혼합연령에서의 효과적인 프로젝트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프로젝트 활동의 전개가 교사주도의 주제중심 활동으로 전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아들이 정한 주제로 활동을 진행한다고 해서 유아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활동 과정에서 유아 스스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탐구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유아들의 호기심을 직접 해결해준다. 그리고는 유아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유아중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소주제들을 교사의 예비 주제망과 흡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주제에 관련하여 교사가 주도하는 주제중심 활동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사는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는 유아중심활동임을 잊지 않고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아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교사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유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성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질문과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많다. 때로는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것 같더라도 우선은 유아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활동을 진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유아들은 스스로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윤은주(2006)는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는 실제 교실현장을 들여다보면 프로젝트 학습이기 보다는 주제학습에 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예를 들어 '몸'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 결과물이 '철사로 몸만들기, 수수깡으로 몸만들기, 찰흙으로 몸만들기'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대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하위주제로 국한하는 '수렴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는 한 하위 탐구주제를 허용해 주는 '확산적' 자세를 취할 때 학습활동에 대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인 푸른반에서 만 4세 위주로 활동이 전개되어 가는 부분이다. 만 3, 4세 혼합연령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이해가 빠른 만 4세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면서 만 3세 유아들은 수준과 반응이 달라 흥미를 빨리 잃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사는 만 3세 유아들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만 4세 유아들이 만 3세와 함께 이끌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생각나누기 시간에 주로 만 4세가 주도권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각 나누기시간을 대집단으로 만 하기 보다는 소그룹으로 나누어 관심분야별로 연령을 섞어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것이다. 즉, 앞으로 진행해야 할 활동에 대해 만 3세 유아들도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상 협력방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서현옥(1999)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혼합연령 학급에서 유아들 간 대화가 단일연령일 때 보다 많아지면서 새로운 정보추출능력과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그룹별로 생각나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만 3세 유아들도 활동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 후 실제로 적용해보기 위해 2차 실행을 준비하였다.

2차 실행은 2009년 8월 17일에서 9월 25일까지 6주간 ‘공룡’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이 이루어졌다. 1차 실행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용해 보면서 푸른반 학급의 수업 개선을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유아와 교사 모두 사전준비를 미리 함으로써 유아들 흥미위주의 풍성한 주제망이 구성되어졌고 유아들이 주체가 되어 소주제 진행순서도 정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활동에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1차 실행 때와는 다르게 유아들 간의 협력 활동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활동 진행상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로, ‘공룡’이 실존동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유아들의 혼동 이었다. 1차 실행에서는 장수풍뎅이를 직접 키우고 관찰 할 수 있었듯이 공룡들도 직접 관찰하고 탐색해보기를 기대하였지만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무척 실망하고 아쉬워하였다.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주제선정이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아들의 반응에 대한 수용의 한계점이다. 유아들의 반응과 흥미, 호기심과 생각들은 각각 개인의 차가 있고 푸른반처럼 혼합연령이라면 연령별의 차이도 있다. 하지만 교사가 모든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유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활동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지거나 환경이나 시간적 제약으로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서경희(1998)는 교사의 고정관념과 인내부족으로 아동의 열린 사고를 방해하거나 교사의 정형화된 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은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이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면 들어는 주지만 결론을 주지 않고 주제 관련이야기로 살짝 주제를 돌리기 쉽다. 하지만 유아들의 열린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활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실행한 결과 혼합연령 학급의 수업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접근 활동은 푸른반 만 3, 4세 대부분의 유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참여자로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푸른반에서 효과적인 교육방안으로 전개한 프로젝트 활동이 유아와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만 3, 4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푸른반은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교사의 걱정과는 달리 기존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을 진행할 때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보였다.

첫째, 교사와 유아들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도이다. 기존에는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이 각각 이루어지고 교사 주도의 주제 중심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아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질문 또한 주로 활동방법에 대한 질문만 하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활동들을 먼저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수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 역시 이제는 연령별로 각자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면서 각 연령별 특성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유아들을 서로 아울러 살피며 유아들에게 안내자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 활동참여도가 높아졌다.

둘째,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 하는 협력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 졌다.

연구자는 교사-유아 간 그리고 만 3세-만 4세 유아 간 눈높이를 맞추어 가기 위해 활동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마련해줌으로써 유아들 간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 활동하며 형님들이 동생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이해하며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는 서현옥(1999)의 연구에서처럼 단일연령일 때 보다 혼합연령학급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의 계획과 정보추출능력이 높아지고 다양한 연령의 엽한, 집단협동이 자주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활발한 유아들 간의 대화와 협력은 서로 다른 연령의 관점과 수준을 이해하게 해주고 새로운 인식을 갖추기도 하며 함께 배우고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공유가 나타나게 해주었다.

셋째, 교사로 하여금 연구하게 만드는 유아들의 아이디어를 들 수 있다. 유아들의 끊임없는 탐구 학습으로 교사가 오히려 유아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2차 실행시 공룡마을 꾸미기 활동이라든지, 공룡 화석 만들기 활동의 경우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교사가 연구하여 만들어낸 활동 이었다. 그 결과 혼합연령일 경우 단일연령에 비해 유아들이 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정보추출능력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보인다는 서현옥(1999)의 연구결과처럼 푸른반 유아들도 점점 서로 협력하며 함께 이끌어가고 교사로 하여금 연구하게 만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였다. 시작부터 마무리 전시 활동까지 유아들은 교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넷째, 세심한 관찰력을 가지고 문제제시를 하는 유아들의 모습이다.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의 관찰력과 집중력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졌다. 기존의 주제중심의 수준별 활동을 할 때는 늘 수동적이고 교사의 주도 방향에 따라 활동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아들의 반응과 관심에 따라 활동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유아들은 무엇이든지 그냥 지나

치지 않고 의문을 가지며 탐색하고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주의를 유심히 살피며 다음에는 어떤 것에 대해 알아볼지 골똘히 생각해 본다는 점이다. 유아들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찾는 탐험가가 되어있었다. 이제는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고 주변에서 쉽게 주제를 제시하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 4세 혼합연령 푸른반에서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써 프로젝트 활동은 기존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활동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해줌으로써 수업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주제중심활동을 연령에 맞게 수준별로 진행하였을 때는 한 공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마치 금을 그어놓고 만 3세반, 4세반을 분류하여 각각 생활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었다. 그러나 1차, 2차 실행을 통한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부터는 유아와 교사의 능동적인 활동참여 뿐만 아니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아들의 모습, 그리고 세심한 관찰력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탐구력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활동은 Katz와 Chard(1989)가 제안 한 것처럼 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연령의 아동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데 적합하였고 혼합연령 유아들 간의 차이점을 이용하는데 적절하였으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한 여러 종류의 과제를 포함 할 수 있었다.

둘째, 만 3, 4세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수업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

면서 교사와 유아들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고, 교사는 많은 사전 준비를 하게 되었으며,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이 눈높이를 맞추어 주며 협력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유아들의 적극적인 탐구력은 교사로 하여금 항상 연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은 교사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활동이 혼합연령 학급에 적합하다는 Katz와 Chard(1989)를 비롯하여 여러 선행연구의(김은희, 1996; 김혜선, 1996; 서현옥, 1999; 유준호, 홍용희, 2006; 정미경, 김혜남, 2004)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만하는 과제가 있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서로의 관심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높은 연령의 유아들은 어린 연령의 유아들을 돕고 이끌어주었고 어린연령 유아들은 높은 연령의 유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모델링으로 삼아 협력하는 친사회적 행동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더욱 세심히 유아들 하나하나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고 프로젝트 활동의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다른 활동들과는 다르게 유아-교사, 유아-유아 그리고 원-가정-지역사회가 서로 연계되어 활동해야하는 의미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아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으며 연구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유아들에 대한 세심한 반응과 이해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한 주변 생활과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유아들이 스스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는 능동적인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실행 연구를 통해 혼합연령 학급에서 실제적인 프로젝트 활동의 적용과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 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늘푸른 어린이집을 배경으로 실시되어 교육현장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팀티칭으로 이루어진 혼합연령 학급의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을 실행한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한명의 담임교사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잡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여러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행한 프로젝트 활동의 횟수가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였다. 2009년도 10월부터는 신종플루로인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실외활동 및 현장 견학이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의 신종플루 확산으로 휴원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역시 신종플루에 걸린 유아들이 급증하여 휴원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 활동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되어었다. 따라서 실행한 프로젝트 활동의 횟수가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에 부족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육현장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혼합연령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 할 수 있는 실행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각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 유아들의 발달수준과 개인차, 다양한 활동과 교수 방법이 제시되어 연구자와 같이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에게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혼합연령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연구가 필요하다. 더 어린연령이나 다양한 연령의 혼합연령 학급에서의 프로젝트 활동도 전개해보는 실행연구도 이루어지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로 혼합연령 학급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모색 되어져야한다. 점점 혼합연령 학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유아교육현장의 많은 혼합연령 학급에서도 효과적인 수업개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나 유아에게 교육적으로 좀 더 심층적인 활동전개를 위한 교수전략 탐색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환경적 요인에 의한 혼합연령 학급의 구성이 아닌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혼합연령 학급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강자경(2000). Montessori 유치원의 혼합연령집단과 동일연령집단 유아간의 사회성 발달비교.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지희(2007). 프로젝트접근법이 유아의 창의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유치원 현황 통계.

구홍미(2005). 혼합연령 구성과 유아의 컴퓨터 활동. 숙명여자대학교 원격유아교육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다해(2008).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명숙(2007). 혼합연령, 팀티칭 학급에서의 교사역할: 문화기술적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2009). 프로젝트접근법의 진행단계에 따른 교사의 인식과 적용실태.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선(1998). 혼합연령 집단과 단일연령 집단간 유아놀이 형태의 차이.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진영, 백혜리, 최윤정(2001).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론**, 서울: 양서원.

김윤희(2005). 혼합연령집단의 협력활동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변화 ,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희(1999). 다상징적 접근에 의한 유아의 사고과정 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판희, 이상도(2001). 프로젝트수행방법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프로젝트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6(1)**, 173-197.

김현미(2002).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이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선(1996). 유아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프로젝트접근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창숙(2002). 혼합연령집단과 동일연령집단 아동의 사회적 능력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선미(1996). 잠망경 프로젝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순희(2003). 혼합연령 집단에서의 공동과제 수행이 유아의 친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민(2007). 오후 재편성 혼합연령학급 구성에 대한 유치원 종일반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혜(2002).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유아교사의 지식**. 서울 : 창지사.

박정민(2008). 프로젝트에서의 문제해결에 대한 실행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정언, 유혜령(2001). 프로젝트 활동에서의 교사역할의 어려움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 10(1)**, 25-32.

박현주(1998). 유치원 혼합연령 학급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은영(2000). 단인연령과 혼합연령집단에 따른 유아의 사회·인지적 놀이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백은경(2009). 협동조형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혼합연령 교실에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정경(2008). 어린이집 혼합연령 학급의 자유선택활동에 나타난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 상호작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현옥(1999). 프로젝트접근법에서 혼합연령집단과 단일연령집단간의 사회적 행동과 프로젝트 수행능력의 차이. **아동교육**, **8(2)**, 75-88.

성은지(2008). 탐구 중심 유아교육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실행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명희(2009). 만 5세 맑은반의 미술관 관람에 대한 실행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은수(1996). 혼합연령 집단과 동일연령집단 유아의 사회인지적 능력 비교 분석에 기초한 혼합연령 집단학급의 교수방법 모색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1)**, 139-155.

안소영(2006). 프로젝트에서의 협력관계에 대한 실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옥승 편(1993). **탁아연구 II**. 서울: 양서원.

어은정(1995). 혼합연령집단구성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몬테소리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수희(1999). 혼합 및 동일연령 집단에서의 타인이해활동처치가 유아의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복연(2003). 프로젝트 접근법 적용단계별 문제점과 대처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은주(2006). 프로젝트 접근법의 반성적 실천: 그 이해와 오해. **한국아동교육학회**, **15(3)**, 187-198.

유준호(2006).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만 4,5세 유아의 연령별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유준호, 홍용희(2006). 만4,5세 혼합연령 종일반 유아들의 관계형성에서 나타

나는 특성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아동교육연구. 26(3)**, 177～200.

윤은주(2006). 프로젝트 접근법의 반성적 실천: 그 이해와 오해. **아동교육, 15(3)**, 187-198.

서정경(2008). 어린이집 혼합연령학급의 자유선택활동에 나타난 유아-유아, 유아-교사 간 상호작용.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기숙(2006). **유아교육과정**. 서울 : 교문사.

이명조, 배미희(2007). **유아교육 현장에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접근법**. 서울: 동문사.

이명환(2005). 독일 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 집단구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1-19.

이부미(1991). 다 연령집단 어린이들의 놀이와 권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선아(2003).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혼합연령 집단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석순(1997).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에서의 사회적 가장놀이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숙재(2000).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이순형(2005).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서울: 학지사.

이윤경(1997). 혼합연령과 동일연령집단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놀이유형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분(2001). 단일연령학급과 혼합연령학급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숙(2006). 유아교육기관의 혼합연령집단구성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연구. 카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임재택(1986). 유치원 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전남련(2008). **유아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프로젝트접근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전화숙(2000). 어린이집 혼합연령 집단 구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미경, 김혜남(2004). 연령집단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의 효과-과학적 과정 기술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3-44.

정혜진(2006).오후 재편성 혼합연령 종일제 유아들의 돕기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옥정(1997).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서울: 창지사.

지옥정(200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프로젝트 과정 중 소집단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열린유아교육학회, 10(4)**, 251-276.

하승민(1995). 단일연령집단과 혼합연령집단간의 아동놀이 행동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금희(1997). 단일연령집단의 놀이와 혼합연령집단의 놀이에 나타나는 유아의 문장특성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금주(2003). 단일연령반과 혼합연령반 유아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의 비교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lasco, P. M., Bailey, D. B., & Burchinal, M. A. (1993) Dimensions of mastery in same-age and mixed-age integrated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93-206.

Brownell, C. A. (1990). Peer social skills in toddlers: Competencies and constraints illustrated by same-age and mixed-age inteeractions. *Child Development, 61*, 838-848.

Chard, S. C.(1992). *The project approach: A second practical guide for teachers*. Canada: University of Alberta Press. 지옥정 역(1995). 프로

젝트 접근법 교사를 위한 실행 지침서. 서울: 창지사.

Elkind, D. (1986). Multi-age grouping. *Young Children*, 43-48.

French, D. C. (1984). Children's knowledge of the social functions of younger, older, and same-age peers. *Child development, 55,* 1429-1433.

Katz, L. G. & Chard, S. C.(1989). *Engaging children's mind.* New York: Ablex.이윤경, 석춘희 역(1995). 유아들의 마음 사로잡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Katz, L. G., Evangelous, D., & Hartman, J. (1990). The *case for mixed-age grouping in early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Katz, L. G. & McClellan. D. E.(2003). **어린이들의 사회적 능력 배양: 교사의 역할(홍용희 역)**. 서울: 양서원. (원서 2000 출판)

Mills, G. E.(2007). **교사를 위한 실행연구(강성우 외 공역)**, 서울: 우리교육 (원서 2003 출판)

Roopnarine, J. L. & Johnson, J. E. (2000).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renice-Hall Inc.

Spradley. J. P.(2006). **참여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신재영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ABSTRACK

A Practical Study for Improving Class Activities of a 3-4 Mixed Age Class: Focusing on project approach

Choi, Yun-Hyeo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class activities of Green Class, a mixed-age class with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at Evergreen Childcare Center.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researcher executed activities suitable for the mixed-age class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e activities, and then analyzed the teacher's roles and changes in the young children and attempted to improve the teaching-learning method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 set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What i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the mixed-age Green Class of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2. What effects do project approach, which are executed a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Green Class, have on the children and the teacher?

This study was conducted at Green Class, a mixed-age class with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at Evergreen Childcare Center in Nowon-gu, Seoul. The participants were 13 three-year old and 8 four-year-old children, so a total of 22 young children, the present researcher who is the class teacher of the class, and a colleague teacher who runs Green Class together.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June 15 to September 30, 2009. First, the researcher, namely, the class teacher identified problems in learning activities in the mixed-age class and performed project activities through two sessions as an effort to improve the class. The procedure of this study repeated the teacher's reflective practice through the process of recognizing problems found in the project approach and applying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e contents of all activities in Green Class were transcrib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collected data such as photographs, videos, interview data, and the teacher's journals were interpreted by type and analyzed categor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mixed-age Green Class of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project approach improved problematic parts in existing level-based activities according to age, so they we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class. When theme-centered activities of different level according to age were executed based on the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they c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mixed-age class, and activities were separated between the two age groups. As project activities were improved through the 1st and 2nd sessions, however, we observe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young children and the teacher in the activities, young children's problem solving through cooperation, and increase in observation skill and inquiry ability for solving problems. In this way, project approach were suitable for teaching

children of different ages effectively in the same place as suggested by Katz and Chard (1989), and could include various types of tasks that can meet diverse needs.

Second, the project approach for improving teaching in the mixed-age class of three- and four-year-old children brought positive changes in both the children and the teacher. While executing the project approach, the teacher and you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more actively than before. Furthermore, the teacher prepared the class more in advance and provided collaborative activities fit for the children's level. Furthermore, as the young children of different ages adjusted themselves to others' level they had collaborative activities in a natural way, and their active inquiry motivated the teacher to keep doing research. In these ways, the project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both the teacher and the young children.

< 부 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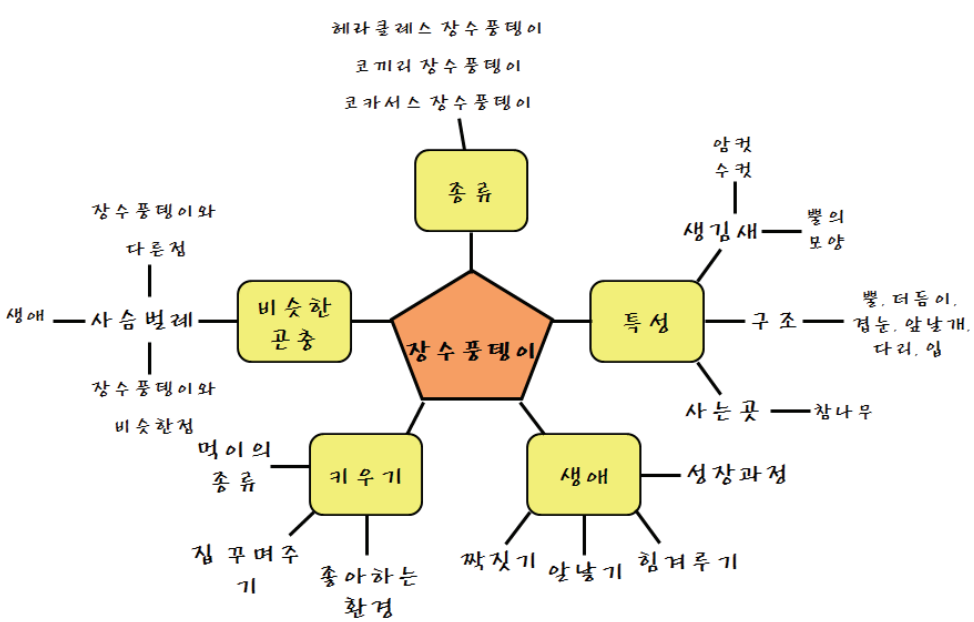
첫 번째 프로젝트 " 장 수 풍 뎅 이 "

1. 제 1 단계(프로젝트 준비 및 시작단계)

1) 주제선정이유

2009년 4월 곤충 축제 때 유아들이 선물로 받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교실에서 키우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수풍뎅이가 되기 위한 변태과정에 아이들이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장수풍뎅이에 관련된 책을 가져오고 등원하면 가장 먼저 관찰을 시작하고 질문이 많아졌다. 따라서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장수풍뎅이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해 보기로 하였다

2) 교사-유아 주제망



3) 유아-교사 주제망 구성하기

♣ 이전 경험 나누기

유아들과 4월 곤충 축제를 다녀오면서 관찰한 장수풍뎅이와 유충, 그리고 집에서 키워본 경험 등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다.

♣ 브레인스토밍(생각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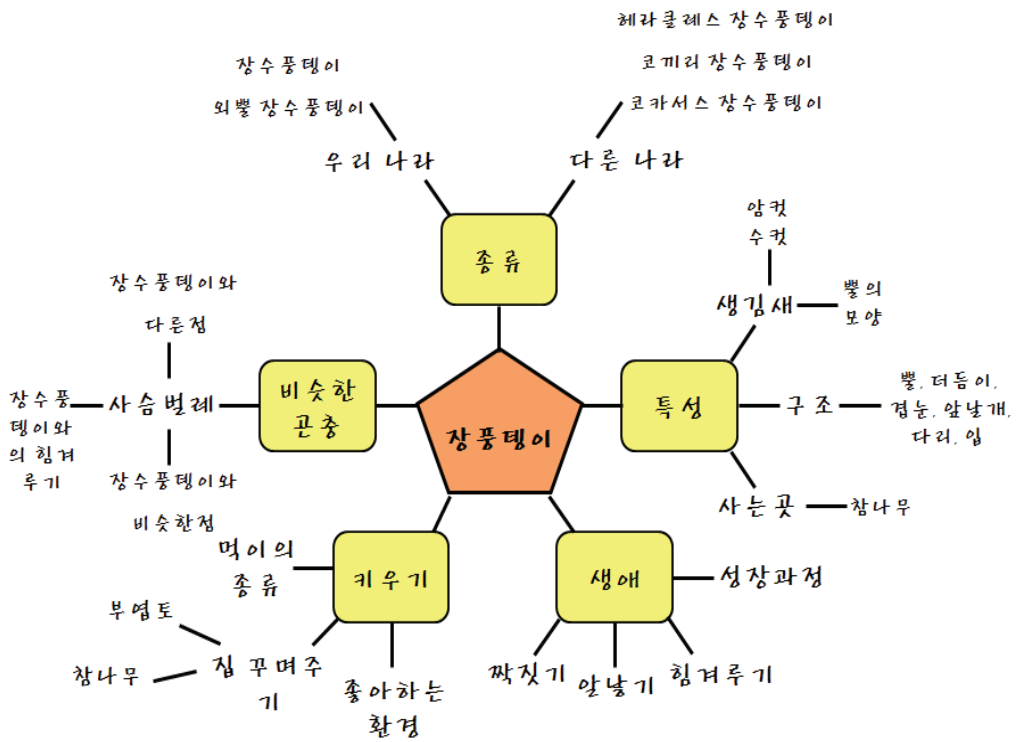
유아들이 장수풍뎅이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칠판에 적어본다. 유아들이 생각한 것들은 모두 적어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공유한다.

♣ 유목화(생각모으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유목화 시켜 유아 주제망을 다시 만들어 본다.

- 장수풍뎅이의 종류: 우리나라(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다른 나라(코카서스장수풍뎅이, 코끼리장수풍뎅이,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등)
- 특성: 생김새(암컷, 수컷, 뿔의 모양), 구조(뿔, 더듬이, 더듬이, 다리, 입, 곁눈)
- 생애: 성정과정, 힘겨루기, 짝짓기, 알 낳기
- 키우기: 좋아하는 환경, 먹이의 종류, 집 꾸며주기(참나무, 부엽토, 젤리)
- 비슷한 곤충: 사슴벌레(여러 종류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와 비슷한 점, 장수풍뎅이와 다른 점, 사슴벌레의 생애, 장수풍뎅이와의 힘겨루기

♣ 유아-교사 주제망



유아들은 장수풍뎅이 키우는 법과 생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남아들의 경우 힘겨루기에 관심을 보이며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지를 궁금해 하였다. 먹이나 짝짓기 사는 곳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한다.

2. 제 2 단계(프로젝트 전개단계)

유아 - 교사 주제망을 중심으로 유아들이 흥미로워 하는 순서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 영역별 주요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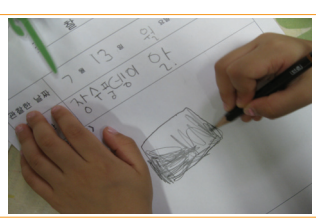
언어영역

“장수풍뎅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장수풍뎅이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적어보고 친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아요~!!	장수풍뎅이는 어디서 살까? 무얼 먹고 살지? 스스로 책을 보며 알아보아요~!!	장수풍뎅이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동영상을 보며 알아보아요!!!

수 • 조작영역

장수풍뎅이의 성장과정을 차례 차례 순서대로 놓아 보아요~	우리나라 장수풍뎅이~! 다른나라 장수풍뎅이~! 어디 어디 살까요~?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며 사는 곳에 장수풍뎅이를 붙여주어요~!	♪ 혼~자서도! 잘~ 할꺼야~!! 이 장수풍뎅이는 어느 나라 장수풍뎅이였더라...? ^0^a

과학영역

		
‘치익~ 치익~’ 장수풍뎅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엽토에 물을 뿌려주어요~	우리 장수풍뎅이가 알을 낳았어요~!! 관찰한 것을 기록해보아요~!!	장수풍뎅이는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ㅇㅁㅇ 성장과정을 생각하며 순서대로 붙여보아요~!

쌓기 • 역할영역

큐브블록으로 장수풍뎅이를 만들어 보았어요~!	장수풍뎅이 머리띠를 쓰고 장수풍뎅이가 되어보아요~!	“나는 암컷 장수풍뎅이! 알을 낳으러 땅 속으로 갈테야~”

조형영역

장수풍뎅이 만들기 1단계! 점토와 요구르트병을 준비한다~!	장수풍뎅이 만들기 2단계! 준비된 점토를 조~물 조~물 장수풍뎅이 모양을 만들어 준다~!	장수풍뎅이 만들기 3단계! 나만의 멋진 장수풍뎅이가 되도록 붓을 이용해 물감을 칠해준다~!

3. 제 3 단계(프로젝트 평가 및 마무리단계)

1)프로젝트 활동 평가

유아들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젝트활동 사진을 보며 어떤 활동들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수풍뎅이에 대한 호기심은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육 목표가 성취되었는지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다양한 종류의 장수풍뎅이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암컷, 수컷, 사슴벌레와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를 직접 길러보며 변태과정을 자연스럽게 이해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잘 기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부화한 장수풍뎅이를 분양하여 키

워보고 싶다고도 하였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유아들은 조금 아쉬워하였지만 다음 프로젝트 활동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지며 마무리 하였다.

2) 활동사진 전시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은 주로 사진자료와 동영상 그리고 실물을 통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전시회가 다양한 자료와 활동들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활동사진을 전시해줌으로써 유아들이 친구들과 서로 보며 활동에 대한 회상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무고 동생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활동사진은 유아들이 항상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은 교실과 계단에 전시해 주었다.

3)교사평가(장수풍뎅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견학시 받은 장수풍뎅이 유충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첫 번째 프로젝트. 계획 면에서는 짜임새가 부족하였지만 유아 흥미 중심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교사나 유아나 서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잘 몰랐었는데 우리들은 서로 함께 알아가며 탐구, 조사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유아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서점에 가서 장수풍뎅이에 대해 서로 알아보려고 책을 사보았고 교사들은 인터넷이나 백과를 통해 장수풍뎅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사진들을 수집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자료가 너무 없고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서적이 대부분이여서 유아들 수준에는 어려웠지만 우리가 기른 애벌레가 성충이 되고 짝짓기를 하여 알을 낳고 또 알에서 애벌레가 부화하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다. 주로 사진자료와 동영상 그리고 실물을 통한 활동들이 이루어져 전시회는 거창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유아들과 함께 탐구 조사를 통해 알아보며 능동적인 유아중심 프로젝트 활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만 3세 유아들이 다소 어려워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흥미를 잃어가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만 3세 유아들의 반응도 꼼꼼히 살피며 활동을 진행해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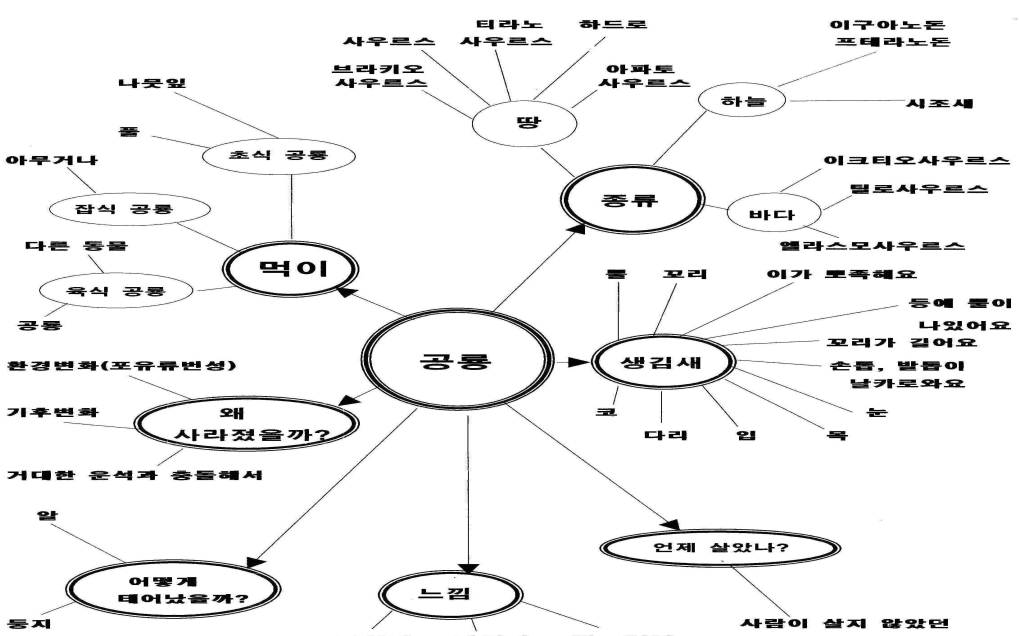
두 번째 프로젝트 " 공 룡 "

1. 제 1 단계(프로젝트 준비 및 시작단계)

1) 주제선정이유

유아들이 가장 호기심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동물 공룡.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아들은 다음 프로젝트 주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중 한 유아가 공룡 박물관을 다녀오면서 유아들이 점점 공룡에 대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번에는 공룡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2) 교사 주제망



3) 유아-교사 주제망 구성하기

♣ 이전 경험 나누기

유아들은 공룡에 대한 활동경험이나 동화를 통해 본 공룡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누었다. 특히 '한반도의 공룡'이라고 EBS에서 방영한 애니메이션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유아들은 서적, 박물과, TV프로그램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브레인스토밍(생각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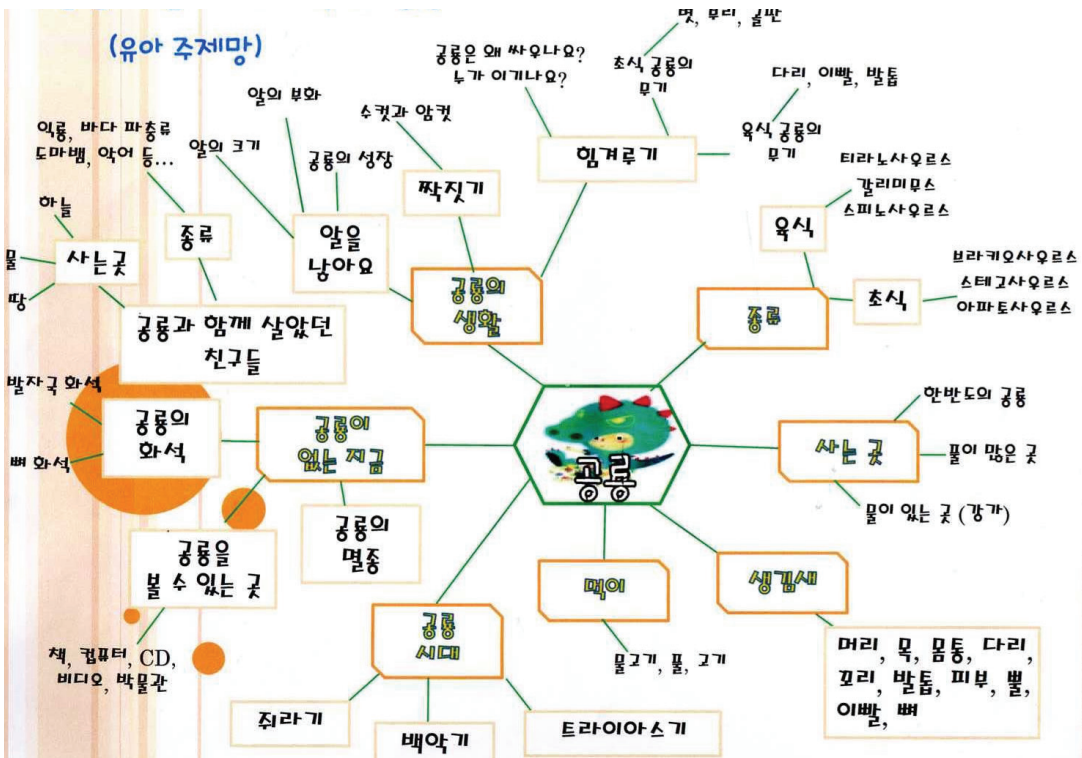
공룡에 대한 사전경험이 많아 생각나누기를 하는데 유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공룡의 종류, 공룡이 살 수 있는 곳, 공룡의 가족, 공룡의 먹이, 공룡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공룡의 뼈, 공룡을 볼 수 있는 곳, 공룡이 살던 시대, 공룡들의 힘겨루기, 공룡들이 사는집, 공룡들의 짝짓기, 공룡의 알, 공룡의 새끼... 등 교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유아들이 많이 이야기해주었다.

♣ 유목화(생각모으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내용들을 유목화 시켜 유아-교사 주제망을 다시 만들어 본다.

- 공룡의 종류: 육식공료, 초식공룡
- 공룡의 생활: 힘겨루기, 짝짓기, 알을 낳아요!, 공룡의 친구들
- 사는곳: 한반도의 공룡, 풀이 많은곳, 물이 많은곳
- 생김새: 머리, 몸통, 다리, 꼬리, 뿔, 이빨, 뼈
- 공룡시대: 트라이아이스기, 백악기, 쥐라기
- 공룡이 없는지금: 공룡의 멸종, 공룡화석, 공룡뼈, 공룡을 볼 수 있는 곳

♣ 유아-교사 주제망



유아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주제별로 유목화 시킨것을 바탕으로 유아 주제망을 구성해 보았다. 유아들이 기존에 공룡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았던 터라 사전지식이 많아 처음 교사 주제망과는 많이 다르고 구체적인 활동주제들이 나왔다. 교사는 종류나 공룡의 멸종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유아들은 실제적으로 공룡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공룡들도 가족이 있는지, 짝짓기를 하는지 그리고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를 궁금해 하였으며 힘겨루기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장수풍뎅이 프로젝트 활동에서 알아봤던 것들을 기억하고 장수풍뎅이처럼 실제로 보고 키울 수 없어서 인지 공룡들의 생활이나 생김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주제망 역시 처음 교사 주제망과는 많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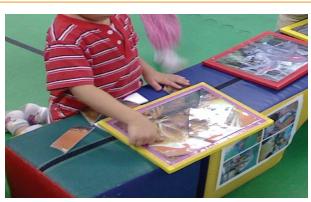
2. 제 2 단계(프로젝트 전개단계)

♣ 영역별 주요활동 전개

언어영역

"공룡 동화 감상" 아이들이 가져온 공룡동화를 들어 보아요! 공룡들에 대해 주로 책을 통해 알아보았답니다.	"공룡 관련 도서 읽기"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공룡이야기책!! 다들 열심히 보고 읽으며 공룡에 대해 알아갔답니다.	"공룡 이름 써보기" 공룡의 이름은 정말 길고 어려워요~그런데 이름 써보기 활동을 통해 글씨도 익히고 공룡이름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수•조작영역

		
"공룡길 만들기" 같은 그림을 맞추어가며 길을 만들어 보아요!! 아이들의 생각대로 정말 다양한 길들이 만들어 진답니다.^^	"공룡 퍼즐"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을 퍼즐로 맞추어보며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공룡 메모리게임" 공룡사진 카드를 모두 안보이게 놓고 뒤집어 같은 공룡이 나오면 가져가는 게임. 유아들의 집중력과 기억력, 관찰력이 날이갈 수록 발달했던 게임~~^^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에 대해 알아보아요"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에 대해 선생님과 알아보며 분류해보았습니다.	"초식공룡과 육식공룡"(1수준) 초식공룡과 육식공룡이 사는곳에 대해 알아보고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분류하여 오려붙여 보았답니다.^^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2수준) 이제는 더 많은 종류의 초식, 육식공룡을 생김새와 공룡이름을 보고 분류하여 붙여보아요! !공룡의 종류에 따라 사는 곳도 다르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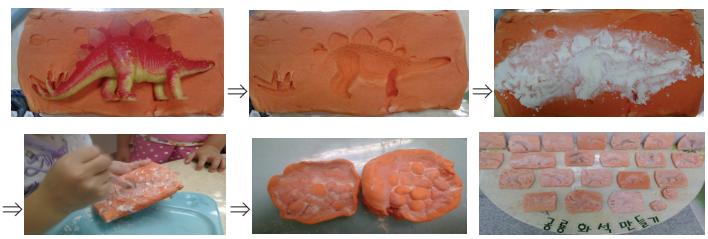
과학영역

← 피트병 나무와 공룡새끼의 집

←알을 낳는 곳, 알에서 부화한 공룡새끼

" 공룡마을 꾸미기 "

공룡의 특성과 생활에 대해 알아보며 유아들과 공룡들이 살기좋은 공룡마을을 과학영역에 꾸며보았다. 유아들은 초식공룡들을 위한 다양한 풀과 나무 그리고 다양한 공룡들을 위한 호수, 알 낳는 곳과 공룡집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꾸며보았다.



"공룡화석 만들기"

아이들과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기 위해
데코점토와 공룡모형, 밀가루를 이용하여 화석을 만들어 보았어요. 실제와는
다르지만 공룡이 어떻게 화석이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했어요!!~~~~^^

신체 • 음률영역

"공룡처럼 움직여 보아요"

공룡노래를 부르며 공룡이 되어 공룡처럼 움직여
보았어요

"공룡들아 모여라~"

같은 공룡, 초식공룡, 육식공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룡들을
모이게 하는 게임도 했어요.^^

쌓기 • 역할영역

"공룡들이 사는 곳"

공룡들이 살 수 있도록
블록으로 집을 지어주고
나무도 만들어 붙여주고
호수도 만들어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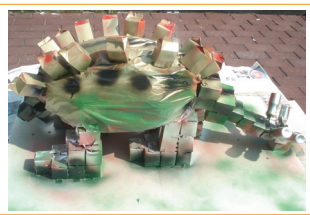
"공룡마을 이예 "

사는 곳을 꾸며준 후
푸른반 친구들이
공룡모형을 이용해 모두
공룡이 되어 놀이해요.

"공룡가족 이예요"

우리는 공룡가족 이예요!!
엄마공룡, 아빠공룡,
아기공룡이 함께 살지요!!

조형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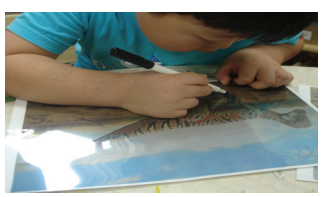


"협동작품-재활용품으로 공룡 만들기"

준비물: 우유곽, 요구르트병, 신문지, 큰 비닐, 락카 등

"밀가루 점토로 공룡만들기"

점토로 아기공룡을 만들어
보았어요! 귀엽죠?



"OHP 필름으로 공룡따라 그리기"

공룡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위해 하게 된
활동이예요. 공룡사진 위에 투명한 OHP 필름을
붙여주어 따라 그려보았답니다. 예상외로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었답니다. ^0^

현장견학(자연사 박물관)

공룡에 대해 좀 더 실제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연사 박물관을 찾아가
보았어요! 실물크기의 커다란 공룡들과 공룡뼈 그리고 화석과
공룡놀이터까지..아이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 열심히 관찰하고 탐구하고 놀이까지 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이였답니다. 역시 몸으로 직접 체험하며 알아가는 것이
최~~고예요!!

3. 제 3 단계(프로젝트 평가 및 마무리단계)

1) 프로젝트 활동평가 및 전시준비

유아들과 그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프로젝트활동 사진을 보며 어떤 활동들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다양한 공룡들을 알게 되었고 견학을 통해 공룡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다음에 한반도의 공룡, 익룡, 해룡만 자세히 한번 더 하자는 유아도 있었다. 평가 후에는 마무리 활동으로 함께 전시회를 열기위한 토의도 하였다. 아이들은 먼저 그 동한 활동했던 작품이나 놀잇감, 서적등도 전시하여 동생들과 함께 활동해 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전시회준비를 위해 교구와(퍼즐, 메모리게임), 공룡책,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모두 놀이실에 전시해주었다. 그리고 여러 작품들은 유아들이 직접 설명서를 써서 붙여놓고 각 영역별 활동들을 소개할 안내 도우미도 아이들과 정하였다

2) 활동 전시회

푸른반 아이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동생들에게 활동소개를 모두 잘해 주었다. 공룡화석은 어떻게 만드는지, 재활용품공룡은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그리고 공룡에 대한 책은 어떤게 있는지 등도 소개해주고 퍼즐놀이도 함께 해 보며 푸른반 아이들은 공룡활동을 다시 한 번 해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동생들도 관람만 하

는게 아니라 함께 놀이 할 수도 있어서 즐거워하였다.

3)교사평가(공룡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들을 보완하여 사전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였더니 유아들의 생각모으기 부터가 확장이 잘 이루어졌다. 워낙 유아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이기도 했지만 교사역시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고를 확장시켜줄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될 수 있었고 유아들 역시 알고자하는 탐구력과 사고력이 확장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공룡프로젝트를 하면서 유아들의 협동심도 느낄 수 있었다. 재활용품공룡을 만들면서도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며 멋진 스테고사우르스를 완성할 수 있었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도 서로 협동하여 혼잡하지 않고 질서있는 전시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교사의 준비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유아들이 많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를 조금만 확장시켜주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활동들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